



성도의 빛 3
1973



영감의 메시지

데이비드 오 매케이

신성한 권능으로서의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다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은사중 가장 큰 것이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갖는 사람의 합당성입니다. 신권의 본질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책임을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신권 소유자는 여하한 경우에서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의식하는 정도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 신권을 가진 사람은 아내를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습니다.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음식 축복을 하며 가족과 더불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원합니다. 신권을 갖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때 가정은 실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권을 절대로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 (교성 121 : 37) 주님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그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훈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와 성약 12 편의 말씀을 자주 읽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형제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제애로 결속된 회원임을 자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권의 표준에 좇아 매일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정직하며, 형제에게 정직하며, 가족, 그리고 우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 형성은 정직과 진실의 원리에 좌우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진실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자녀를 보호하십시오. 억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부모의 참된 본보기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상 생활에서 신권을 의롭게 행사하여 교회를 강하게 하는 일에 기여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순서

해롤드 비리	2	신권의 능력
엔 월튼 태너	5	신권 : 당당한 군대
매리온 지 롬니	7	신권의 성약
데오도르 에이 터틀	9	신권 — 그 능력과 힘
월포드 우드럽	12	신권의 책임
조셉 필딩 스미스	18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열쇠와 권리
제임스 이 탈매지	19	아론 신권에 대하여
모리	20	질의 응답
돌로레스 아발로스	21	아무일도 없었던 마을
매리 엘 러스크	26	미리암이 아기 모세를 돌보
지 엔 랜스다운	28	달나라 사람
폴 체스맨	29	멸망된 백성의 유적
매리 프렛 패리쉬	32	성약의 수호자
브랜트 에이 바로우	36	가정에서 가장의 반차를 강화함
아서 알 바셋	41	조지 앨버트 스미스 : 타인에게 미친 영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3년 3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 92호

편집겸 발행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연가

1973년 3월호
제9권 제3호

- 대관장단
해롤드 비리
엔 엘튼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십이사도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이 힝크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보르스 알 매콩키

정 가: 1권 100 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800 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이달의 성도의 벗: 이번 호에는 특별히 신권에 관한 기사를 많이 다루었다. 더우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현대 예언자들의 말씀을 신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교회의 회원은 남자거나 여자거나 간에 신권과 신권의 능력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남편이 신권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려면 아내도 신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결혼을 '앞은 여자는 합당한 신권 소유자의 자질이 무엇인가를 배워 장차 남편될 사람을 고르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신권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하고, 한 가정에서 신권 소유자를 지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게 되었을때 결혼에 있어서 상당한 준비를 갖춘 것이라 하겠다.

여자도 신권의 책임, 능력, 빈차에 대하여 배워 신권 지도자를 전적으로 지지하여 이를 통한 훌륭한 축복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신권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사람이 신권에 대하여 알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인품, 명성, 지혜, 능력, 권능을 가져다 주는 것이나, 자신을 인간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며 마침내는 헤아릴 수 없는 영원 속에 화평과 행복, 영광과 힘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신권입니다.

末日 聖徒 예수 그리스도 敎育
仁 川 支 部
仁川 郵遞局 私書函 2號

이달의 표지: 이번호 표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830년 4월6일 뉴욕주 페이엠티에서 일어난 일이다. 존 폴터가 그린 그림으로 원본은 미조리주 인디펜던스에 있는 교회 방문자 센터에 걸려있다.

신권의 능력

봉사와 우정 순종 유혹을 물리침에 대하여 신권 소유자에게 주는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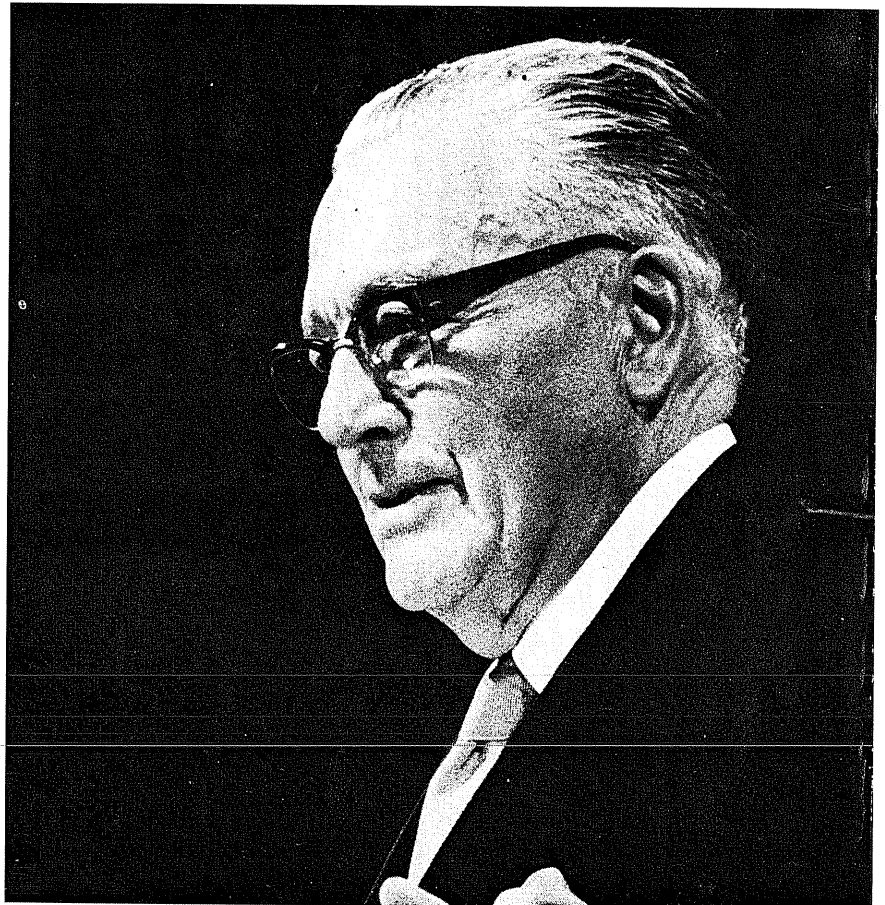
해롤드 비리 대관장

이와 같은 경험을 또 한번 누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저녁에 저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듣고 있겠읍니다라는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은 몇년 전에 동양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청소년기의 생활에서 생기는 오류가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꺾어 버린다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두시에 군인 형제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젊은 사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셨던 주기도문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비유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 하시기를 위함이니라”(요 17:15) 그리고 그는 순결에 대하여 내가 전에 들어 보지 못했던 훌륭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는 저의 도덕성을 잃는다면 차라리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씀을 끝냈습니다.

모여 있던 청중 군인들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 젊은 군



인은 단에서 내려오다 말고 비틀거리더니 단 위로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일으켜 놓고 그가 정신이 들도록 손을 썼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된 그를 청중석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를 내려 보내면서 선교부장이 내게 말하기를 “기분이 몹시 언짢은 모양이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느끼기로는 저 젊은이의 마음 속에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말한

말씀과 대항하여 싸우는 무엇이 있는 것 같군요”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야기 할 순서가 되었을 때 나는 그 젊은이에게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명의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형제는 도덕성을 잃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씀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 악마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예상이 틀리지

않는다면, 악마는 형제가 실지로 도덕성을 잃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인가를 시험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지도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정말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공군 기지 옆에는 우리 군인을 유혹하려고 매춘부들로 가득 찬 사악하고 더러운 마을이 점점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을 그런 손아귀에 걸려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그 매춘부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우리는 그가 데이트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아채었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게, 우리는 자녀가 계속해서 데이트를 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자녀 어머니를 생각해 보게. 또 자녀 애인을 생각해 봐, 자녀 누이동생을 생각해 봐, 우리가 자녀와 함께 가서 그 관계를 원만하게 끊도록 도와주겠네!’

그들은 그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주일 동안 그들의 감시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들은 그를 워드 교사로, 요사이 말하는 가정 복음 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 복음 교사란 막사 내의 비활동 군인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주일 후에 그에게 순결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지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맥케이 대관장님과 로스 앤젤리스 신전의 헌당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총회와 총회 사이에 나는 바람을 쐬려고 잠시 나왔습니다. 건물의 서쪽 편으

로 걸어 올라 가면서 나는 윗 층계에 있는 꽤 낮은 익은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로 다가 갔습니다.

그 청년은 나를 알아보자 층계를 뛰어 내려와 나의 목을 안고는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스 앤젤리스 신전에서 일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때 나는 목이 매어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수 년전에 그가 운명의 한 발자국을 내딛어서 아마도 로스 앤젤리스 신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귀한 권리를 영영 박탈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 갈림길에 그가 처해 있을 때 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몇년이 지난 후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귀여운 아이를 팔에 앉고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팔을 끼고 복도를 걸어 들어 오는 젊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여자를 그의 아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들 아기의 얼굴을 내게 보여 주었을 때 그 젊은이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빛이 역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는 그의 아기의 피에도 깨끗하고 순수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무방비 상태에서 오는 유혹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화를 들려준 다음 “만일 네가 이러

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너는 어떻게 처신하겠느냐?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갖게 됩니다. 악에 물든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사람은 그 젊은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아침에 아들을 그의 잠자리로 불러 들여서 십 오분이고 얼마고 인생의 모든 면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또한 아들이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그가 오묘한 자연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을 때 아버지가 대답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알기를 원하고 있으며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솔직하고 숨김 없이 말하여, 아들이 자라면서 그의 지식에 미치는 정도로 이야기해 준다면 아들은 상담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아버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경험이라는 책으로 부터 아들에게 공과를 가르쳐 무방비 상태의 순간에 운명의 함정에 빠질지도 모르는 가능성에 대처하도록 도와 준다면 그 아버지는 아들의 영혼의 닻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이라든가, 가정 복음 교육, 신전 결혼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여러가지 활동을 공부하면서 결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가정의 밤이나 가정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권유하지 않아서 추호의 진전도 못 보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정 복음을 배우고 가정의 밤을

계속하며 성찬식에 참석하고 더 많은 신전 결혼 의식을 갖고 신전에 참석할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은 가정에서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신권 소유자들이 자신의 신권을 소중히 여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가정이 보호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그의 가족을 영원한 복지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그의 가족을 모두 교회에 인도하여야 하며, 가족과 함께 성찬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가족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의 밤을 인도하여야 하며, 가족을 신전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여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계단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동하고 생활하여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권을 귀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입니다.

교회내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자살을 감행하고 있으며 그들은 신체적인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절망의 절규가 있으나 만일 제 시간에 발견만 하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는 수 많은 사람이 영적인 자살이라는 위험에 처해 있어서 절망의 절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절망의 절규를 제 시간에 인식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도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개종하여 교회에 입교함으로써 여러가지 훌륭한 기회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정의 손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에 아직 신권을 받지 못한 형제님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 내려서 그들이 신권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회원에게 당부합니다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이 오늘 저녁에 하신 말씀은 또 다른 감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배운 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후임 사도로 있을 때 내가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교회의 재조직은 그랜트 대관장님께서 서거하였을 때였습니다. 교회의 대관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으레 그렇듯이 긴 토의를 하기 위하여 신전에 모여 있는데, 나는 이러한 재조직에 언제나 따르는 소문인 누가 보좌가 될 것이고 누구는 보좌가 안 될 것이라 하는 소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관장님께서 그의 보좌를 지명하시고, 그들이 회의실 앞에 앉으셨을 때 나의 마음속에는 저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대관장단 이시라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진리가 나의 귀에 소리쳐 울리는 것 같이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으며 나 또한 그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교

회의 지도자와 함께 있고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불같이 파고 들어 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개종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교회의 회원은 그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종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올바르게 임명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완전히 개종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알았던 바와 같이 지금도 주님께서 택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심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간증드립니다. 나는 바로 이 단상에서 십이사도의 한 분이신 올손 에프 휘트니 사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반드시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며 오히려 이들보다 더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자리가 비어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실 때는 주님께서 주어진 시기에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두루 찾으셔서 택하신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총 관리 역원으로써의 31년이라는 세월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며, 교회의 모든 조직에 주님의 성스러운 인도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매일, 한결 같이 느끼고 있다는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겸손한 간증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㉔

신권 : 당당한 군대

왜 신권 소유자는 유혹을 극복하여야 하며 신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가?

내가 교회의 이 건물 혹은 다른 건물에서 신권의 큰 지혜를 생각하려 할 때마다 “보라! 당당한 군대”라는 찬송가를 더욱 실감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 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신권을 지니고 있는 우리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며 우리의 신권을 잘 사용할 때 얼마나 큰 힘과 영향력이 미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책임입니까!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며 결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에 대하여 부끄러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권리와 의로움이라는 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보다는 더 성스럽다”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며 결코 방황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자기의 명성을 잃지나 않을까, 혹은 조롱당하지나 않을까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을 즐겁게 하고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나 세상과 같이 되지는 마십시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나는 여러분께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신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것과 신권을 중히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바로 어제 매우 유명한 사업가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는 교회에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아주 헌신적인 회원이며 자신의 신권을 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한번이라도 신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제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라고 물어 보았을 때 그는 “태너 부대관장님, 오히려 언제나 유리하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혹자는 젊은이와 심지어는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는 오늘날의 세계 추세로 보아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도덕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도덕가인 체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마음이 편협하고 도덕과 지혜가 뛰어난 체 하는 사람을 말하는 듯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판단한다면 그 말이 맞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잃고, 현대의 제시를 부인하고, 세상과 같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현대화시키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신

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회복된 복음과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 12: 42, 43) 이와 같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 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젊은 형제님께 간곡히 말하고 싶은 것은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모든 형제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권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음달에 칩체를 받으려는 한 젊은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가족 중에는 칩체를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나는 “형제님은 어떻게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학교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가 바로 교회의 회원이었는데 그 친구의 생활 태도가 pek 관심을 끌게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다. 그는 언제나 명랑했고 어느 날 집으로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가정의

사랑을 보았고 그 가족의 생활 방식을 보고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였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운동 경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선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큰 감명을 주었으며 저도 교회에 속하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브리감 영 대학에 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습니다. 저기 있는 젊은이들 대부분은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젊은 형제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거나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동지하게 만들 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나는 변호사의 직업을 얻고 뉴욕으로 떠나려는 한 젊은 청년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큰 회사로 인정을 받고 이 회사의 사장은 역시 동부에 위치한 큰 회사의 부사장인 교회의 한 회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그에게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장의 말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란 당신의 교회 회원들이 생활하는 방법대로 사는 사람, 즉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일을 충실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젊은 청년들에게 생활의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활할진대 언제나 여

러분의 생활에는 이익만 오게 됩니다.

회사의 부사장인 이 사람은 “솔트레이크 시에 있는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뉴욕까지의 왕복 차비를 주어 그를 초청하여 접견을 마치고는 그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부인의 차비는 물론 집까지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이 함께 일하게 되는 사람에게 미치는 여러분의 영향을 위하여 여러분이 택해야 하는 생활 방식을 과장하여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여러분이 해주기를 기대하며 맹세한 대로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내려 누르지 않는 한, 지금은 신권을 갖고 있지 않은 형제님들이라 하여도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며칠전 미 청소년 상업 회의소 회장이 부인과 두 쌍의 부부와 함께 인사를 한다고 지역 회의소 일원으로 일하는 교회 회원의 안내를 받아 나의 사무실로 찾아 왔을 때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상업 회의소의 회장인 이 젊은 사람의 책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나는 “교회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네 알고 싶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그들을 안내해 준 젊은이를 바라보며 “형제가 이야기해 주겠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 태너 부대판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닐세, 자네가 교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젊은 사람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물몬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몬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예언자에게 주어 졌으며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말했습니다. 중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며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것은 참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 책에 나오는 약속 한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그는 “이 책을 한 권 갖고 싶으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상업 회의소 회장은 “물론이죠. 흥미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드린 분이 바로 리차드 모일입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처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느 것처럼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었고 복음이 회복되어 교회가 이 땅에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에 대한 간증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형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녁에 들은 간증을 받아 들이고,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들으며 동시에 기도와 공부를 계속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도 자신의 간증을 얻을 수 있게 되며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요 17:3)

우리가 신권을 존중하고 신권의 축복을 누려서 우리의 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생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신권의성약

형

제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기회입니다. 수 만의 성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님들이 교회의 대관장단으로부터의 권고를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나는 대관장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관장님께서 그리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나의 생각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과 함께 일했던 이십 오년 전으로 되돌아갔었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님께서 공무를 집행하시면서 취하신 조치로 말미암아 야기된 비난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 때 그는 한팔은 나의 등을 또 한팔은 나의 왼쪽 어깨에 얹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여, 언제나 대관장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만일 그 분이 잘못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그일로 형제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더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대변자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딴 길로 이끌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니까요.”

나는 그의 충고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그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것 같습니다.

이 모임에 모인 형제님은 모두 신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실 때 그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신권 소유자는 부름에 충실하여야 한다



매리온 지름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서 2:11)

아브라함의 시대 이후로 그의 후손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로 성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룬 성약중의 하나는 “신권에 관한” 성약입니다.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신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쓰여 있기를 “모세의 자손에 대하여 말한 것 같이 모세의 자손과 아론의 자손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과 희생물을 드리리니, 주의 전은 내가 지정한 바대로 성별된 지점에 이 세대동안에 건립되어 주께 헌납되리라.

“모세와 아론의 자손은 시온 산 위

에 있는 주의 전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차리라. 그 자손은 바로 너희요 또 나의 교회를 세우도록 내가 불러 보낸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되리라.” (교성 84:31~33)

나는 이것이 참되다고 믿습니다. 나는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형제님들은 그들의 내부에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사회 복지 모임에서 리 대관장님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맥케이 대관장님을 처음 보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관장님께서서는 “당신은 나의 얼굴을 보고 그 답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언젠가 현재 사랑하는 지도자의 아버지인 조셉 에프 스미스께서 주지사와 저명인사들과 함께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아리조나주로 내려 갔을 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중의 여러 사람이 교회의 대관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서는 그것을 감사히 받아 들이고 그들과 함께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다시 군중속으로 나왔을 때 주지사는 “그 분과 함께 서 있을 때 도둑질한 듯한 기분

을 느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권의 부름에 충실한 위대한 분의 위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교성 84 : 33~34)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는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형제님들이 자기의 부름과 임명을 확신하도록 몇 번이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한다면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계시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권을 받아 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 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니라”(84 : 35)

이 말씀은 주님을 대표하도록 임명된 신권의 역원을 받아 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신권을 받아 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 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 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 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 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 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 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교성 84 : 35~39)

스미스 대관장님께서서는 기도에서나 혹은 회의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성약과 책임에 충실하고 진실하도록 하여 줄것을 기도하고 바라신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의 의무는 의심

할 여지 없이 우리들 각자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 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 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교성 84 : 40)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권의 부름에 충실 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과 성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성약과 맹세를 조금도 깨뜨리실 수 없다고 계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뜨릴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신권 소유자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관하여 계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 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84 : 41)

자, 신권의 부름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모두 사함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칩제의 법, 십일조의 법, 지혜의 말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약을 맺고 있는 신권 소유자들이 이 성약대로 살기를 포기한다면 분명 영생의 약속을 잃게 되는 위험을 맞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것과 그들이 지상에서 구세주를 대변하신다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신권의 힘이 참되다는 것과 우리가 최선을 다 할 때, 하늘로부터 권능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며 우리에게 신권을 부여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한국 선교부 산하 지부및 지방부 주소

서울 서 지방부-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청운-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인천-인천 우체국 사서함 52
 녹번-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61-56
 수원-수원 우체국 사서함 40
 서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1
 신촌-서울 마포구 신수동 93-190

서울 동 지방부-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2-4
 동부-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2-4
 삼청-서울 종로구 삼청동 5
 성북-서울 성북구 송천동 518-18
 영등포-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 230-1
 성동-서울 중구 을지로 6가 20-3
 춘천-춘천 우체국 사서함 9

중부 지방부-전주시 다가동 1가 67 ~1
 대전-대전 우체국 사서함 38
 동대전-대전시 삼성동 387-22
 청주-청주시 사직동 100-11
 군산-군산 우체국 사서함 40

호남 지방부-광주 우체국 사서함 131
 전주-전주 우체국 사서함 38
 광주-광주 우체국 사서함 29
 동광주-광주 우체국 사서함 129
 서광주-광주 우체국 사서함 131
 목포-목포 우체국 사서함 7
 여수-여수 우체국 사서함 12

영남지방부-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
 대구-대구시 삼덕동 2가 24
 동대구-대구시 중구 동인동 3가 365-4
 서대구-대구 우체국 사서함 33
 부산-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
 동구-부산시 동구 수정동 3동 658-10
 동래-부산시 부산진구 구포동 923-68
 서면-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587
 마산-마산시 오동동 224
 진해-진해시 대왕산 218-494



신권 : 그 능력과 힘

올바르게 사용될 때 신권의 힘이야말로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다

십이사도 지역 대표 세미나를 포함하여 이 대회에서 모든 연사들이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언급해 온 주제는 신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입니다. 나도 역시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신권의 능력과 힘은 세계사를 통하여 볼 때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1835년 3월 28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와 모임을 가졌을 때 예언자 요셉은 이 신권에 대한 중요한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신권이 있나니, 곧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이니라.

“먼저 것을 멜기세덱 신권이라 함은 이것이니 곧 멜기세덱이 위대한 대제사였음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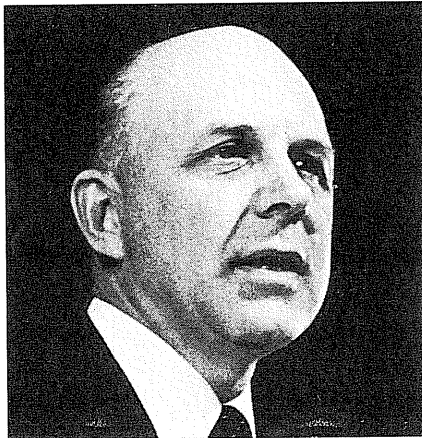
“멜기세덱 이전 시대에는 이를 하나님의 아들과 반차를 따른 성신권이 라 하였느니라.

“교회의 모든 권능 또는 직분은 모두 이 신권에 부속되어 있느니라.”

(교성 107 : 1—3, 5)

위에서 말한 바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신권 자체보다 더 위대한 신권의 직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직분은 신권으로부터 그 권능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분도 신권에다 권능을 부여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데오도르 에이 터틀 회장
칠십인 장로 제일 정원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신권으로부터 능력과, 덕과, 권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이 원칙을 완전히 마음 속에 새긴다면 교회의 행정 기능은 지금보다 훨씬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 교리 [메저렛 출판사 1939] 148페이지)

교회에는 신권을 소유하고 제신 분들로 조직된 관리 정원회가 셋 있습니다.

“이 두가지 신권 안에는 필요상 여러 직분에 성임된 자들 중에서 선출 임명되거나 필연적으로 생긴… 관리 역원이 있나니

“멜기세덱 신권을 가진 대제사들 중에서 세 사람의 관리 대제사가 선출되어 그 직분에 임명, 성임되며 교회

회원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 교회의 대관장단인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십이 순회 평의원은 부름을 받아 십이사도가 되나니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될 자들이니라……

“저들은 정원회를 구성하여 권위와 권능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세 관리 대제사와 동등하다.

“칠십인은 십이사도회…의 지지 아래 교회를 설립하여 모든 백성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를 정리한다…” (교성 107 : 24, 34)

신권이란 무엇입니까?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이란 이 지상과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정부이니 그 이유는 이 신권의 능력, 위임, 원칙에 의하여 지상에서나 하늘에서 모든 일이 다스려지며, 이 능력이 모든 것을 지지하고 후원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지지하며, 모든 것을 지지하며, 하나님과 진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예지를 위임받아 지상의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복음 왕국 [북 크래프트사 출판, 1943] 129페이지)

승명을 얻기 위하여 인간은 신전을 지어야 하며 그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교성 84 : 33-34, 38-39)

그러나 이는 우리 모두가 얻은 신권을 영화롭게 하였을 때에 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신권의 활용과 행정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 소모되는 힘도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저마다 맡은 바 직분을 지켜 자기의 부르심대로 힘써 일하라……조직이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느니라”(교성 : 109-110)

각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지킬 때 오늘날 교회의 대제사는 총괄적인 신권 책임을 지니고 계보를 조사하고 신전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신권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회원은 올바른 시간과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돌아가신 친족을 구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회원은

1. 기억의 책을 가져야 하며
2. 적어도 사대까지 완전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3. 신전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4. 죽은 자를 위한 칙례 의식에 참

여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칠십인은 신권 선교사업이라는 직분과 부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칠십인은 선교사로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있어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으로서 우정을 찾고 도모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회복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그들의 직분과 부름에서 사회 복지 사업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모든 성도들에게 신권을 통한 가정 복음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은 와드에서 감독을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독특한 부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권 가정 복음 교사는

“……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 할 것을 권고하며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회안에 악행이 없는지,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는지,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들이 없는지 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회합하도록 힘쓰며 모든 회원이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돌보느니라”(교성 20 : 47, 53-55)

이 특별한 의무는 모두 주님께서

가정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르치라’는 단어는 이 성구에 간접적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정 복음 교사로서 우리의 의무를 완전히 깨닫는다면 이는 실로 주님께서 가정에 복음을 가르치라고 성임하신 자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신권 가정 복음 교사가 비록 그 부름에 합당한 능력에 다다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교회 봉사에 가장 고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봉사라는 점입니다. 교회에서의 신권은 악의 침입을 막아내는 강한 보루입니다. 이 지상에는 가정내의 신권을 존경하는 의로운 사람 외에는 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젊은 형제님들을 등한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혜로 충만하신 주님께서 이미 젊은 형제님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불러 주셨습니다. 때때로 여러 젊은 형제님들은 교회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의 권고를 따르기만 한다면, 교회에는 젊은이들에게 드릴 부름이 많고 또한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조금만 입에 물고” 뛰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삐 쥘

손은 짐 부릴 힘이 없다.” 젊은이들의 정력과 힘이 성숙한 성인의 지혜와 합쳐질 때 위대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 함께 일하도록 만드신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에게 순결한 생활을 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에 합당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7년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지금 우리가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해도 다른 사람은 그때까지 살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정원회의 모든 회원이 그 의무를 이해하며, 자신의 책임을 지며, 그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 신권이 지니고 있는 예지와 능력에 따라서 교회의 직분을 지키는 그 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지금 교회의 보조 조직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규 신권 정원회가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대초부터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신권의 정규 조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방편을 교회내에 마련 하였습니다.”(대회 보고 1906년 4월 3 페이지)

드디어 우리는 신권의 각 직분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신권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그 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련 장로로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다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이 책 임의 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구원하여 승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봉사하라는 평범한 부름도 아니요, 광적인 부름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 질서있게 하고 여러분 가족의 모든 문제를 조절하며, 이웃을 위하여 봉사의 손을 뻗치고, 이 성스러운 권능으로 타인을 축복하기 위한 장엄한 권고입니다.

영감을 받으신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이 교회는 이미 적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는 환란의 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형제님들로부터 오는 표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흘간의 대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회의 메시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즉 대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어나서 신권의 책임을 지고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는 보통 대회와는 달랐습니다. 단지 ‘이제까지의 어떤 대회보다 훌륭한’ 대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하여 회개하고

교회에서 부여된 위대한 능력에 충실 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권고하노니 당당히 일어나십시오. 게으름과 태만의 족쇄를 떨 어 버리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 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러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 형제들아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 (교성 128 : 22)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영원하고 위대하신 대제사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 하심으로써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이분들은 성 신권의 열쇠를 지니고 계시며 그 능력과 영감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간증 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이 분들과 같은 그룹은 없습니다. 이 분들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뛰어나서 이곳에 오신 분도 아니요, 인기 대회에서 선출되어 오신 분들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예언과 안수를 통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들의 영감의 권고를 따를진대 모든 일이 연합하여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關

신권의 책임

월포드 우드럽 (1807~189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4대 대관장

나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어떤 종류의 일이나 사업을 행하도록 할 때는 우리는 그들이 그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주님도 이와 같은 것을 인간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 한 이 교회와 왕국에 속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갖는 임무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중책에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일에 바쳐야 할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에 부름을 받거나 성임이 되느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무시하거나 뒤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록을 하던 않던 기록은 남게 됩니다. 이러한 예를 알려주는 계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여러분을 따라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역사 즉 그의 행위는 그가 이곳에서 기록하였던 하지 않았던 모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감람잎”(교성 88편)으로 알려진 계시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 위에는 많은 일이 놓여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도, 브리감 영도, 십이사도도 할 일이 많았으며 우리도 모두 할 일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일들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

상을 떠난 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왕국을 등진 것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책임과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지닌 책임을 보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며 간절히 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께 말씀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성 신권의 소유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은 물론 하나님과 높은 하늘에 대해 지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일성도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왕국 건설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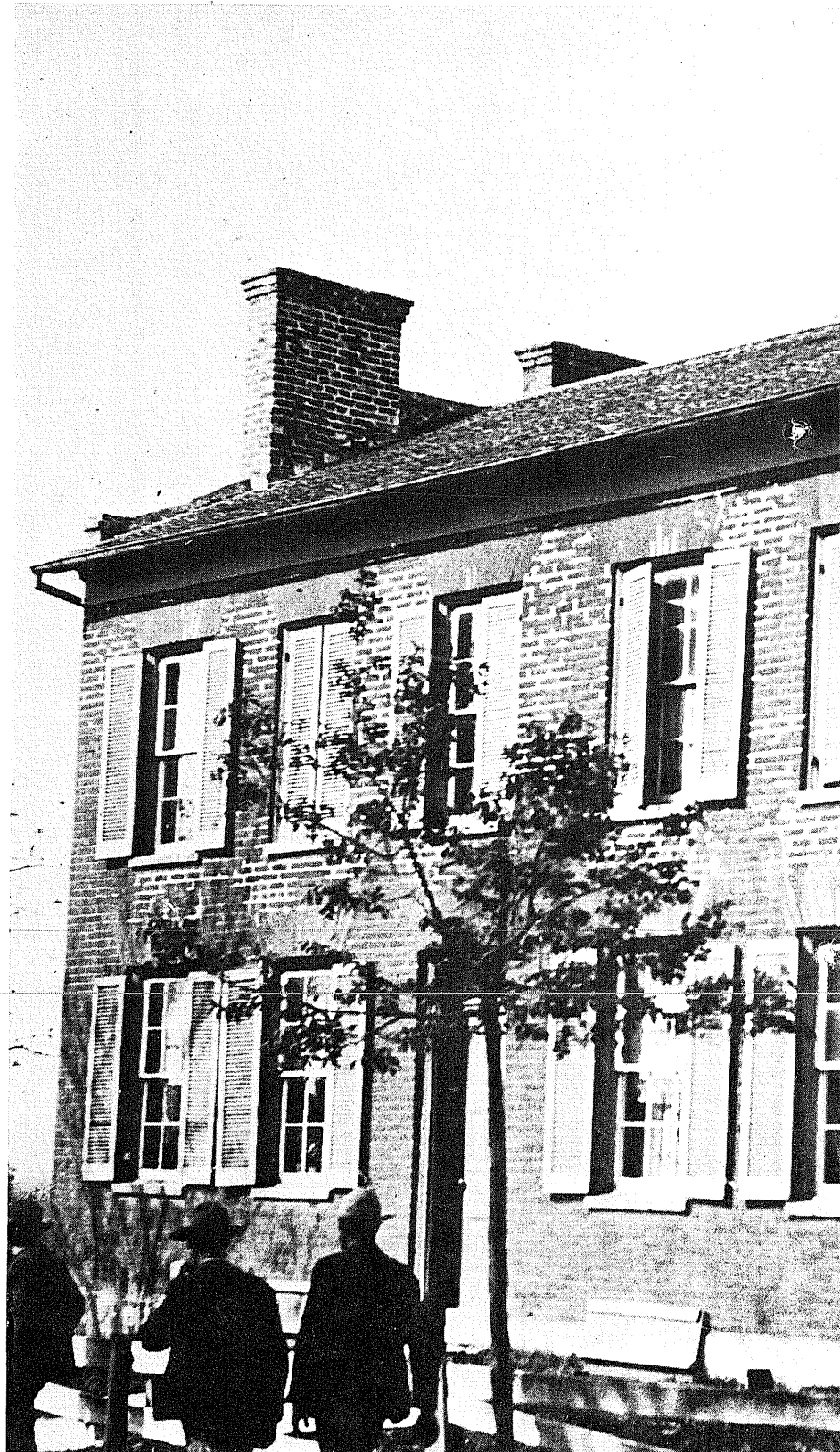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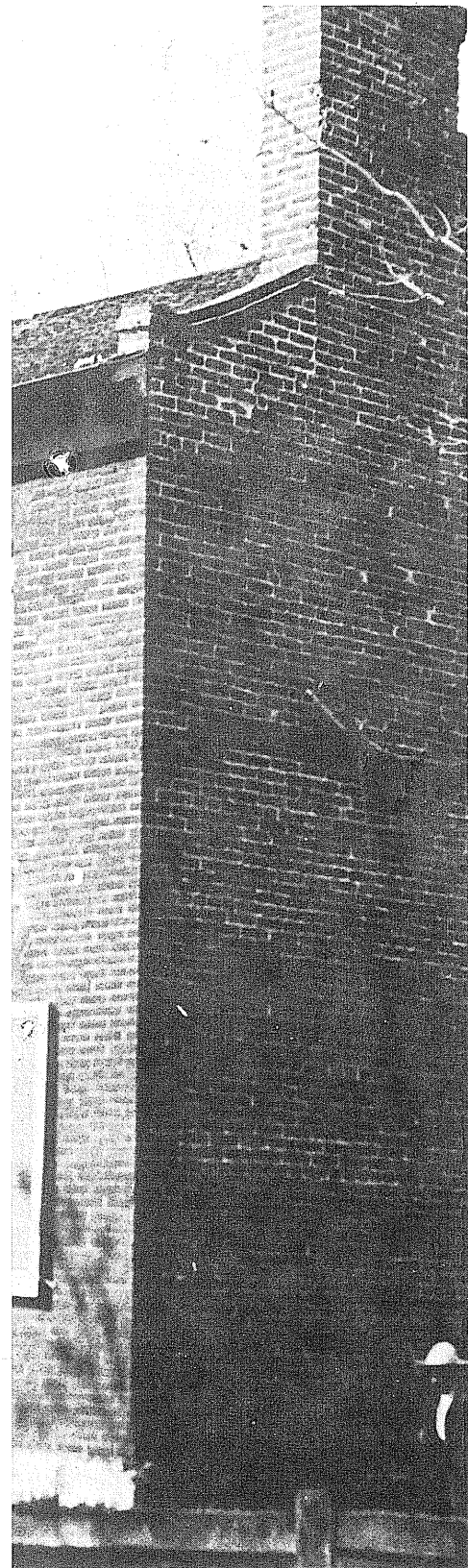
들이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적으로 생각하진 마십시오. 나는 우리가 행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 일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다른 사람이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 보고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룩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 보며 우리가 이 계곡에 들어 온 이래 십이사도 가운데 여덟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 자신도 그곳에 가고 싶으며 나는 나의 형제들도 그곳에 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머지 않아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 몇년 동안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이 왕국을 건설하는 일 뿐이라고 느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의무를 게을리하고 이 세상의 일에 마음을 쏟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생각해 보고 세상에 사는 12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머리 위에 받을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들에게 나의 간증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이 세대에 나의 간증을 전하기를 게을리 한다면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사업에 관해서 느끼는 나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이 세대의 규모와





위대성을 생각하고,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위대하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지상에 남을 수 있는 과거 어느 때에도 볼수 없었던 유일한 왕국을 세우시기로 계획하신 경륜의 시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사야의 위대성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도시와 함께 승천한 예녹의 경우를 제외하면 세상은 언제나 예언자를 파멸시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자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 왕국이 지상에 남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있으며 또한 오늘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실과 우리의 책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모두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힘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질시를 받아가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신전을 바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주님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을 즐겁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나와 나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두 오랜 동안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물문경과 오늘날 살아 계시는 예언자에 대해 간증을 해 왔는데 그러한 간증은 이 세대를 불리하게 판단 하지 않도록 전파될 것이며 그러한 사실들은 거부하는 자들을 징죄받게 할 것입니다.

이 왕국은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계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분은 우리를 지지

해 주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노한 마음을 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적의 손을 묶어 놓으시며 시온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직된 모든 무장 군대를 처부십니다. 그 분은 이 산간 계곡 지대에 그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감독과 권능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 사업을 이행하는데 최대의 관심을 기울일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의 시현이 열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살 먼 훗날과 시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며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에 관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것도 역시 여러분과 나의 특권이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름을 게을리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도록 부름받은 일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일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 행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초기 선교 시절을 회상해 봅니다. 테일러 형제, 부리감 형제, 나와 다른 몇명은 열병과 학질등 우리를 에워싼 죽음의 힘에 쓰러지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돈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를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분은 이 교회와 왕국에 속한 성실한 장로들을 지원해 주셨으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나의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처한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우리가 전해야 할 간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의무를 이행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나, 칠십인, 장로, 제사로서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우리의 주변은 깨끗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성의 경계병입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지상의 주민에게 경고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만일 그들이 우리의 간증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자기가 초래한 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악한 자들에게 내려질때 그들은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의 옷과 많은 사람의 옷

이 요셉 스미스나, 브리감 영이나 신의를 지키다가 죽어간 이스라엘 장로들의 옷처럼 깨끗해 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전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은 경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지는 결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처한 우리의 위치가 우리 자신과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영의 세계에 가게 되면 이 시대에 속했던 영들이 일어나서 나를 저주하며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도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쳐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가 찬 이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그의 왕국을 설립하셨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경륜의 시대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사업을 행하게 하셨으며, 내가 종종 말했듯이 우리의 대부분은 이 세상이 조직된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의 세계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받고 있으나, 악마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노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권을 주셨고 왕국과 그에 속한 열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날을 고대하던 고대의 예언자나 사도들을 실망시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요셉 스미

스나 이 사업의 기초를 놓고 뒷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먼저 떠난 형제들을 실망시켜야 하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제발 영생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세상적인 일에만 마음을 쏟지 마시다. 감독으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일을 지시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주는 권고가 이행하기에 힘든 일이라고 느끼지 않게 합시다. 만일 여러분께서 지상에서 천년을 살았다거나 선조인 아담처럼 오래 살았다거나 혹은 평생을 가난 속에서 일하며 살다가 죽었다 해도 여러분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첫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거할 아내나 자녀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천년의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여러 왕국, 왕위, 주권에 비길만한 것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왕국을 얻었습니다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합니다. 그 왕국은 여러분이나 나를 배도에 빠지게 이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 형제는 다음과 같이 현명한 권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도록 주신 의무를 여러분이 저버리거나 여러분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나 허용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배도의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위를 살피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부탁하실 때에는 지

체 없이 행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겨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권을 배반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여러분께서 배반을 한다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고를 많이 받고 있으며, 나도 그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무를 게을리 하고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와 왕국에 들어온 이후 한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의 천배만큼이나 큰 보상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서 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권고를 게을리 할 때 반드시 벌을 받게 되며, 그것은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다 주게 마련입니다. 유일하고 안전한 길은 온 힘을 다하여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여 왕국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우리가 그로부터 받은 직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만족감이나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물론 사상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갖고 있거나 내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사상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축복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 진 하나님의 왕국인 이 교회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물론 사상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재산, 재능,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으로 올 세상에서 왕국과 권세와 주권을 확약받았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금이나 은, 또는 세상적인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은사에 무엇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과,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 합니다. 나는 한 백성으로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권세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서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도 많은 악이 들어 차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큰 힘으로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 신권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등불을 밝히고 인자가 오실 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 분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성스럽게 하시고 영생을 기쁨으로 물려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㉞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열쇠와 권리

조셉 필딩 스미스 교회 10대 대관장(1876—1972) 오늘날의 대신권 소유자의 책임과 능력

나는 여러분에게 신권과 마지막 복음의 경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열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 멜기세덱 신권을 갖고 있으며 이 신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땅의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신 힘이며 권능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그 왕국이란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러한 열쇠는 대관장단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지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주님의 일을 통괄하고 지휘하는 힘이며 권위입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신권을 소유하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통괄하고 조절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지시와 위임의 한도 내에서만 그 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권과 열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엘리야 그 외의 고대 예언자들에 의하여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신권과 열쇠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안수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관장단의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하나님이 선임 사도이신 교회의 대관장단이 완전

히 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성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권과 열쇠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만 존재합니다.

요셉 스미스의 계시에 의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열쇠는 “대 신권의 대관장단에 항상 속해 있는 것이니라”(교성 81:2)고 하셨으며 또한 “나의 말을 받아 들이는 자요, 나를 받아 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파송한 자 곧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네 조언자인 대관장단을 받아 들이는 자니라”(교성 112:20) 비슷한 내용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는 “여러분은 주님의 집을 향하여 하루에 세번씩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과 친숙해야 합니다. 대관장단을 주시하고 지시를 받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아주 명확히 해야 하는 일이 한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대관장님이나 대관장단,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성도로 하여금 열길로 인도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지시를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개인은 아마도 걸길로 빠지기 쉽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은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대관장단이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

원회는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성도와 세상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고 또 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려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교성 42:11)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교성 65:2)

형제 여러분, 이는 모두 진실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대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원인은 정당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셔서 끝날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대관장단을 주시하고 그들의 지시와 의견을 따르다면 이 지상에는 교회로나, 개인으로나 어떠한 힘도 우리의 진로를 변경시킬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생에서 평화를 얻으며 다가 올 세계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아론신권에 대하여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전은 또 다시 레위의 자손들이 의롭게 제물을 주게 바칠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13)

(제임스 이 탈메지 형제는 소년이었을 때 성임을 받았다. 그가 문에서 보초를 서게 된 원인은 그 당시 그 지방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으므로 적이 접근을 하면 회원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새로이 성임된 집사가 그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나”는 사전에 어떠한 예고도 없이 어느 일요일 아침에 부름을 받고 성임되었다. 그날 오후에 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집 문 앞에서 보초를 서게 되었다. 내가 성임되자 나의 가슴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나와 같은 어린 소년이 신권의 부름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나는 전에 소신권의 성스러운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레위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하여 읽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에게 주어진 일의 부분을 내가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조그마한 가슴에 감당하기 어려운 벽찬 것이었다. 나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다. 그러자 내가 문 앞에서 나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 있을 때 나는 내가

단지 11세의 소년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나의 마음속에서 나는 주님에게 속해 있으며 내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강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나보다 강한 보호가 내 옆에서 있다는 확신을 버릴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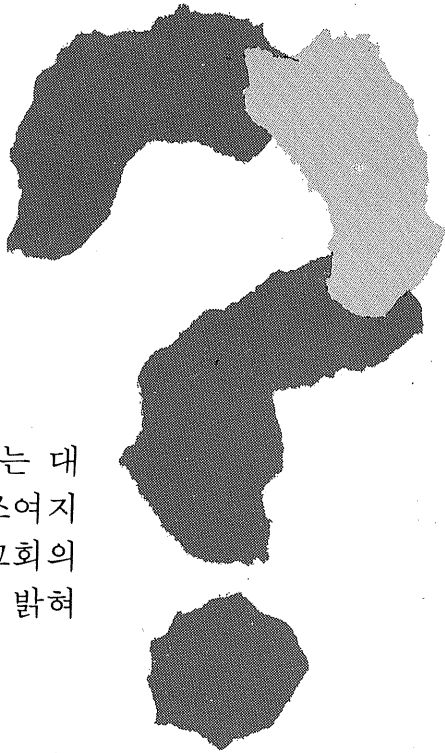
“집사로 성임되었다는 것은 나의 소년 시절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때때로 나는 집사라는 사실을 잊기도 했으나 다시 생각하면 나는 감사했고 그렇게 다시 생각함으로써 나 자신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놀 때, 혹은 게임을 하면서 부정 수단을 쓰려고 할 때, 놀던 친구와 싸움을 할 때 나는 집사라는 것을 기억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커다랗게 ‘나는 집사야, 집사로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효과적이었다. 시험을 치를 때 옆의 아이의 답안지를 보고 베끼거나 책을 보고 베끼기 쉬운 때도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집사다.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고 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혹은 학교에서 부정행위하는 것을 보면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내가 저렇게 하

는 것은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집사이니까.’

나의 직책으로 내가 해야 했던 일에 싫증을 느낀 적은 한번도 없었다. 나의 성임에 대한 명예 의식 때문에 모든 일이 즐겁기만 했다. 나는 집사에 불과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내가 처음 집사가 되었을 때 나의 마음에 떠 오른 인상은 결코 가지지 않았다. 내가 신권 소유자로서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할 수 있는 부름을 받고 느낀 감정은 그후로 내 힘의 원천이 되었다. 후에 내가 교회의 보다 높은 직에 성임되었을 때에도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즉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입은 진리 안에 있는 자이며 주님께서 그의 권능에 충실하라고 내게 명하신다. 나는 교사, 장로, 대제사로 차례 차례 성임되었으며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되었다. 이렇게 새로이 성임될 때마다 내가 처음에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집사로 성임되었을 때 알게 되었던 새롭고 영혼을 울리는 감정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신권 정원회를 위한 연구: 집사 1914, 135—36페이지) ㉠

질의 응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해서 얻는 이로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요즈음 저는 대회에 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로 여겨집니다.”



대담: 리처드 E. 모레이

교회에서 여는 대회는 회원과 비회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로부터, 혹은 연사로부터 특별한 힘을 얻는 기회입니다. 그곳에서 듣는 진리의 말씀은 교회에서의 부름을 받은 일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에 까지도 도움을 줍니다.

안타깝게도 혹자는 지방 대회와 연차 대회에 모두 참석하면서도 그곳에서 하등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는 연사에게 비난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만일 연사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앞좌석에 앉아서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느 대회보다 훌륭했다고 느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물론 연사는 말씀을 잘 준비하여야 할 책임이 큼니다. 그들은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교리와 성약 88 : 77을 보라)는 주님의 계명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계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연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중의 요구를 고려하고 하나님의 영의 속삭임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중들이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중이 열심이 들고 영감을 얻도록 기도하며 그것을 기대할 때 연사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힘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회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성장, 영감, 만족감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혹자는 총관리 역원들이 예전처럼 지방대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요 13 : 20) 다시 말하면, 만일 지방 대회에서 말씀하기로 지명된 연사가 말씀할 자격과 가치가 없다면 주님의 영은 그와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청중은 대회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청중은 기대를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서 대회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는 계명을 지켜왔어야 하며, 지난 대회때에 평의원이 전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려고 애써왔어야 합니다. 대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회가 있는 사이에 얼마나 충실히 생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충실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면 나는 저들이 함께 모이는 날에 저들 위에 나의 영을 부어 주리라”(교성 44 : 2)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나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면 여러분과 연사와 그리고 그곳에 모인 다른 회중에게 까지도 큰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기위하여 모인 자들에 관하여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주께 기쁨이 되나니 천사들도 너희를 보고 기뻐하느니라. 너희 기도의 구제자가 사바오스의 주의 귀에 상달되었고 거룩하게 된 자 곧 해의 영광의 세계에 사는 자들의 명부에 기록되었느니라”(교성 88 : 2) 대회에 임하는 여러분 자신을 사려깊게 준비하실 때에 주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며 대회는 여러분의 일생에서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리처드 에이치 모레이

오스트렐리아

세미너리 및 종교학원

가정 학습 과정 책임자



아무일도 없었던 마을

들로레스 아발로스 작 / 니나 그로버 그림

카

타리나의 멕시코 마을에서는 학교가 파했고 어네스토와 리카르도는 황폐하고 건조한 평원을 지나 짙과 진흙으로 빚어 만든 집을 향하여 걸었다. 산 기슭에서 솟아 나오는 물을 큰 물통에 길어서 지게에 지고 걸으면서 리카르도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이번 여름에는 무얼 할까?”

어네스토의 검은 눈은 싫증이 나고 침착하지 못했다. “뭘 할것 같애?” 그는 반문했다. “꼭 같은 일이지. 별 뾰족한 수는 없어! 장마나 졌으면 좋겠다. 수영이나 가게 말야.”

“클럽이나 뭐 그런 것을 시작할 수 있잖아.” 리카르도가 제안했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네스토는 어깨에서 지게를 내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선생님은 여섯 주일 동안이나 읍내에 가서야 돼. 공부하러 말이야. 선생님이 돌아오신 후에 클럽을 조직하려면 이미 때는 늦는단 말야. 우리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밤낮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리카르도는 천천히 말을 했다.

“우물을 팔 수 있지 않니?”

어네스토의 크고 검은 얼굴은 조소로 변했다. “야, 듣던 중 가장 신나는 방학 계획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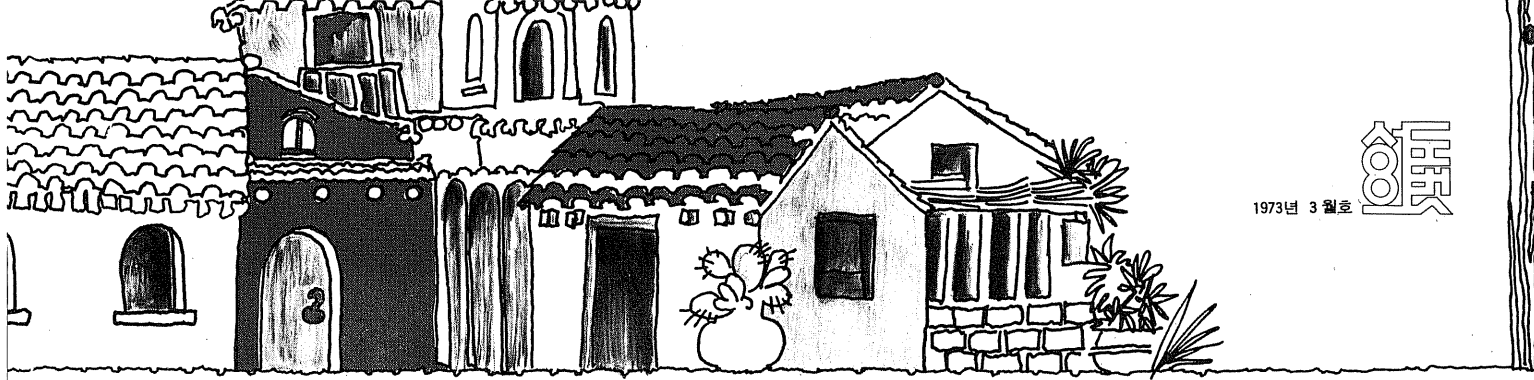
“그렇게 신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 나도 알아,” 리



카르도는 말을 받았다. “그렇지만 우린 진짜 우물이 필요해. 우리 집 뜰이 맞닿는 곳에 우물을 파면 우리 집도 편해질꺼 아냐?”

어네스토는 잠시 조용했다. 그의 눈은 먼 산 너머를 바라보며 그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했다. 그곳에도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그만 마을이 있을까?

그러나 그의 생각은 리카르도가 방금 제안한 것으로 다시 돌아왔다. 마을은 사실 우물이 필요했다. 어네스토는 자기가 길어 오는 물을 어머니가 귀하게 쓰실 것을 생각했다. 어머니는 화분에 심어 기르는 고



버와 베고니아에도 귀한 물을 조금씩 주었고, 소제할 때는 붉은 벽돌 바닥에 물을 아껴서 뿌리곤 하셨다. 심지어는 개수대에서 설겅이 한 물을 부엌문 밖에 있는 꿀나무와 보리수에 주기도 하셨다. 저 산 너머를 바라보는 것은 이 담으로 미루어야 하는 것이었다.

“좋아” 어네스토는 마칩내 어깨를 움크리며 말했다. “우물을 파자.”

다음날 아침 어네스토의 아버지는 집 뜰을 가로지르는 선인장 울타리에 구멍을 파는 일을 도와 주셨다. 그들은 선인장 뿌리를 파내고 말뚝과 굵은 밧줄로 우물을 팔 곳에 원을 쳐놓았다.

곧 어네스토와 리카르도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일에 착수하였다. 태양에 타버린 땅은 단단했고 오후는 찌는 듯이 더웠다.

“얼마나 깊이 파야하지?” 리카르도가 물었다.

“물이 나올 때 까지!” 어네스토는 웃었다.

둘은 매일 함께 일했다. 그러나 어네스토는 가끔 땅을 파면서도 공상을 해 보았다. 그는 그가 잘 아는 크락크씨가 들려 준 이야기를 생각했다.

크락크씨는 카타리나에 은퇴하여 살고 있는 지리학자였다. 크락크씨가 가 보았던 고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가는 줄 몰랐다.

장마철이 가까와 지면서 부터 태양은 뿌연 상태로 변했다. 구름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곤 했지만 카타리나는 여전히 몽롱한 상태였다.

소년들은 우물 파는 데에 임시로 도르래를 설치하여 흙과 돌을 퍼내도록 해야 했다. 이제는 땅 파기가 더 힘들어 졌으며 소년들의 손에는 못이 박혔다. 그러

나 소년들은 꾸준히 둥글게 우물을 계속 팠다.

어느 날 아침 어네스토가 우물에 먼저 들어갈 차례가 되었다. 그는 곡괭이를 집어 들고 도르래의 줄을 잡고 아래로 내려 갔다. 그는 곧 흙이 이상하리 만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제는 바위는 없고 땅은 모래로만 되어 있었다. 어네스토는 빈 양동이를 채우고 다시 곡괭이를 땅으로 올렸다. 다시 그는 특이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러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하는 것 아냐!” 어네스토는 리카르도의 얼굴이 구멍 끝에 보이자 이렇게 농담했다.

잠시 후에 어네스토는 뼈를 찾았다. 오래된 뼈였다. 그것도 아주 아주 오래된 거대한 뼈였다.

“줄 끝에 이걸 뭘 테니까 끌어 다녀!” 어네스토는 리카르도에게 소리쳐 말했다.

리카르도가 이 뼈를 조사하는 동안 어네스토는 계속 땅을 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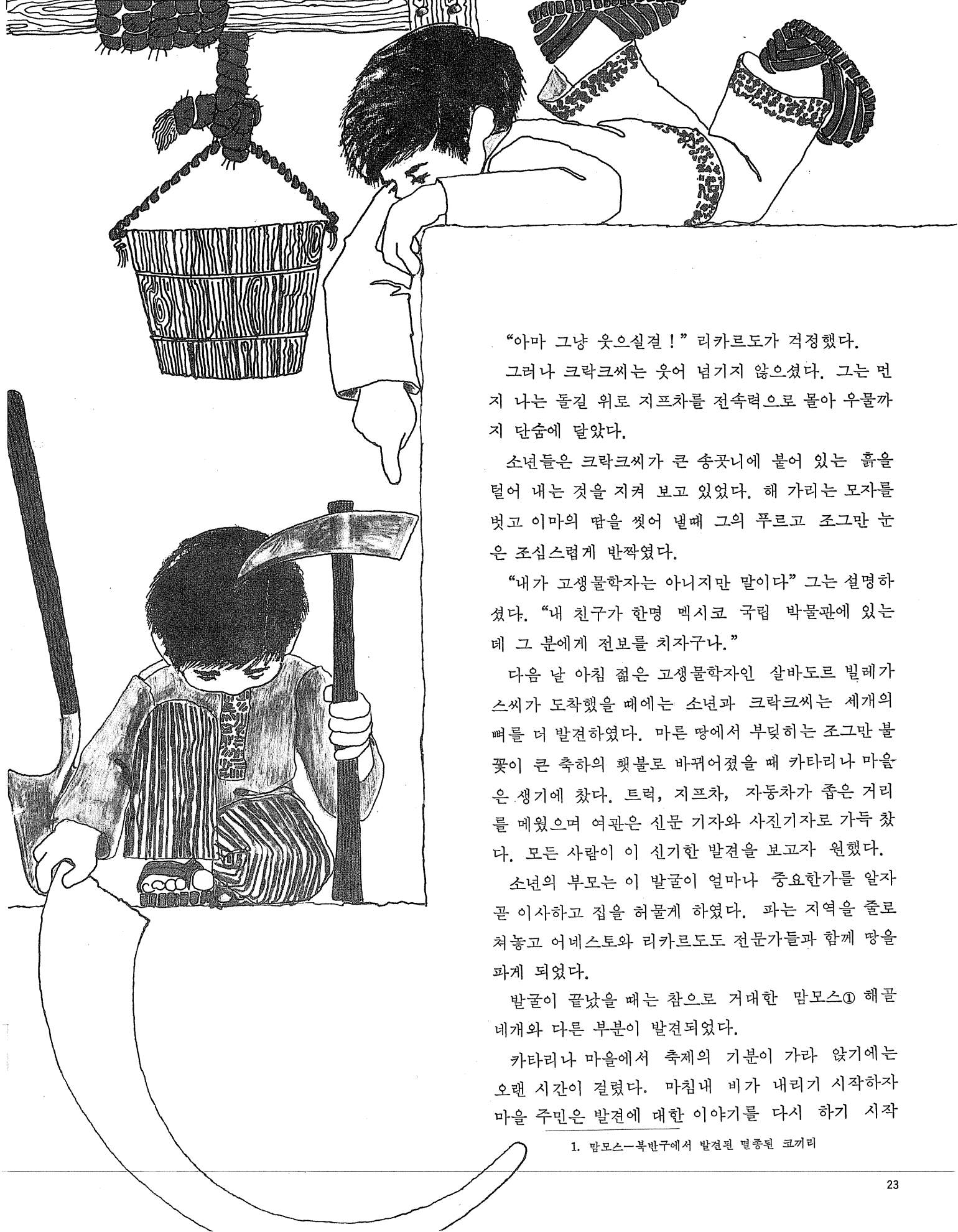
“야!” 리카르도가 불렀다. “이런 뼈는 생전 처음이야!”

“어네스토는 점점 신이 나서 대답했다. “이리 내려와 봐! 여기 또 큰 것이 있어!”

두 소년은 거의 한 시간동안 열심히 일했다. 이 물건을 파내기에 거의 지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쉽게 빠졌다. 이것은 뼈가 아니라 거대한 송곳니였다. 바로 세우면 소년들 보다 더 큰 송곳니였다.

“코끼리 이가 틀림없어!” 리카르도가 외쳤다.

“혹시 다른 것일 지도 모르지” 어네스토는 중얼거렸다. “크락크씨에게 가서 물어보자!”



“아마 그냥 웃으실걸!” 리카르도가 걱정했다.

그러나 크락크씨는 웃어 넘기지 않으셨다. 그는 먼지 나는 돌길 위로 지프차를 전속력으로 몰아 우물까지 단숨에 달았다.

소년들은 크락크씨가 큰 송곳니에 붙어 있는 흙을 털어 내는 것을 지켜 보고 있었다. 해 가리는 모자를 벗고 이마의 땀을 씻어 낼때 그의 푸르고 조그만 눈은 조심스럽게 반짝였다.

“내가 고생물학자는 아니지만 말이다” 그는 설명하였다. “내 친구가 한명 멕시코 국립 박물관에 있는데 그 분에게 전보를 치자구나.”

다음 날 아침 젊은 고생물학자인 살바도르 빌레가스씨가 도착했을 때에는 소년과 크락크씨는 세계의 뼈를 더 발견하였다. 마른 땅에서 부딪히는 조그만 불꽃이 큰 축하의 햇불로 바뀌어졌을 때 카타리나 마을은 생기에 찼다. 트럭, 지프차, 자동차가 좁은 거리를 메웠으며 여관은 신문 기자와 사진기자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이 이 신기한 발견을 보고자 원했다.

소년의 부모는 이 발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자 곧 이사하고 집을 허물게 하였다. 파는 지역을 줄로 쳐놓고 어네스토와 리카르도도 전문가들과 함께 땅을 파게 되었다.

발굴이 끝났을 때는 참으로 거대한 맘모스^① 해골 네개와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다.

카타리나 마을에서 축제의 기분이 가라 앉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 주민은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

1. 맘모스—북반구에서 발견된 멸종된 코끼리

했다.

“다음 여름에는 무얼 할까?”

어느날 리카르도가 어네스토에게 물었다.

어네스토는 검은 두 눈을 재미있는듯이 굴리면서 웃었다. “할일이 많지” 그는 대답했다. “새 집도 지어야 하고 우물도 파야하고……” 리카르도의 미소의 답은 여러가지를 생각나게 하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해 주었으므로 그는 멈추었다. 두 소년은 더 이상 모험의 꿈을 꿀 필요가 없었다. 모험은 조그만 마을에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㉔

이중 수수께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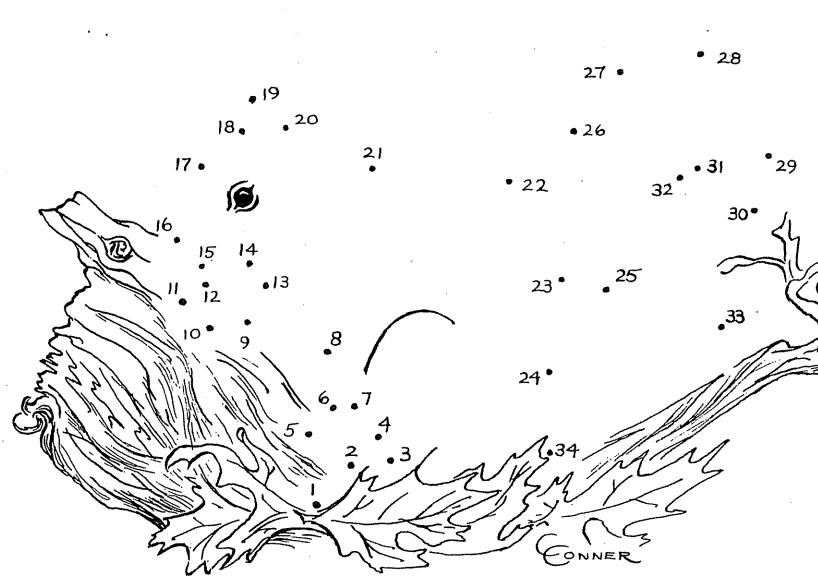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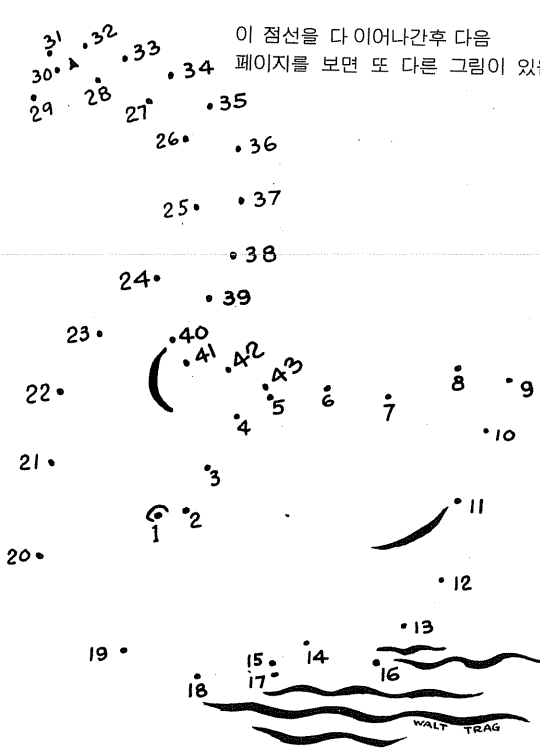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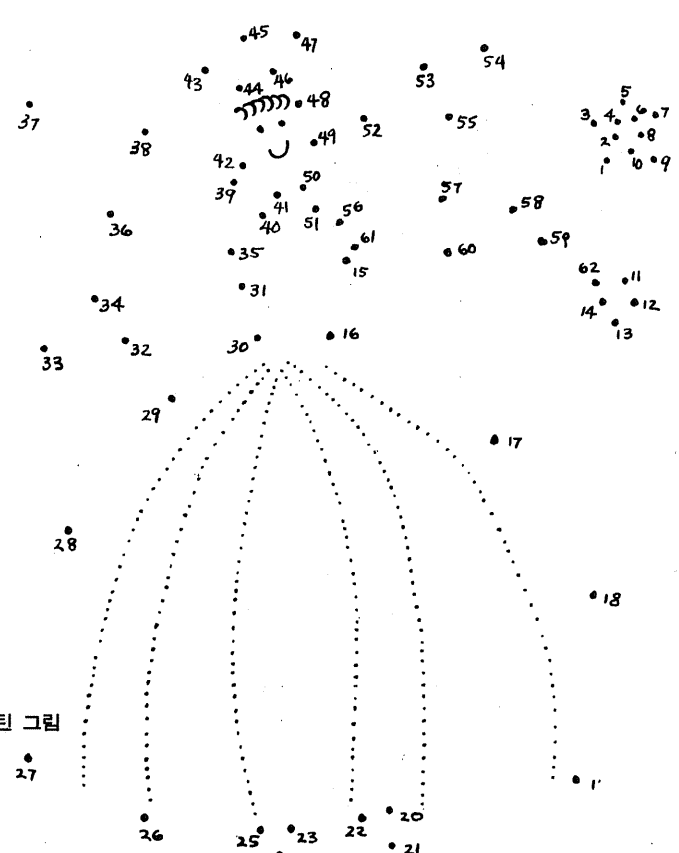
윌트 트랙 그림

헨리 마틴 그림

이 점선을 다 이어나간후 다음 페이지를 보면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점선잇기

캐롤 코너 그림



매리의 정원

쥬디 케이프너

이 그림안에는 한개의 아이스
크림을 담은 원뿔형 과자, 공
주, 스키 타는사람, 거미, 안전
핀, 어머니와 아기 원숭이, 두
마리의 어린새, 기타, 토끼 머
리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
러분은 몇가지나 찾으셨나요?



미리암이 아기 모세를 돌봄

매리 엘 러스크 씀
버지니아 싸전트 그림

강가의 갈대숲 사이는 서늘하였고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다. 미리암은 물이 점점 분기 시작하는 갈대 사이에 감추어 놓은 바구니 속에는 갓난 동생이 있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다른 동생인 아론을 돌보는 일은 이번 일과는 전혀 달랐다. 아론이 어렸을 때는 미리암이 그를 안고 시원한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놀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히브리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는 명을 내리기 3년 이전의 일이었다.

미리암이 기억하기로는 그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의 왕을 위해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도시를 건설하기 등 왕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왕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더욱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혔다. 이제 히브리 백성들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삼개월 전에 미리암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었던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특별한 아기였기 때문이다. 어찌 그들이 그 아기를 이집트 사람의 손으로 강물에 던지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어머니는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과



1973년 3월호 **예**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다. 이것이 말려졌을 때 아기가 편안하도록 바닥에는 보드라운 천을 깔았다. 그런 다음 아침 해가 뜨기도 전 어둑어둑한 시간에 갈대 숲속에다 아기를 감추어 놓았던 것이다. 미리암은 근처에 숨어서 혹시 어린 동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나를 지켜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웃음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의 딸인 공주가 하녀들과 같이 나일 강가로 목욕을 하러 온 것이다.

공주는 물에 떠 있는 이상한 바구니를 보았으며 하녀를 시켜서 그것을 건지게 하였다.

공주가 바구니를 열었다. 울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공주는 “참 귀여운 아기네”라고 말을 했다.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겠지?”

이때 미리암이 숨어 있던 곳에서 달려나와 “이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구해 올까요?” 하고 공주에게 물었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거렸으며 미리암은 달려가서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다. “날 위해서 아기를 잘 키워주세요. 그러면 보수도 후히 주겠오” 라고 아기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래서 미리암과 그녀의 어머니는 아기를 바구니에 담은 채로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 이 아기를 키웠고 사랑했으며 그의 백성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쳤다. 아기는 무럭 무럭 자라났다.

아기가 다 자랐을 때 미리암의 어머니는 아들을 바로의 딸에게 데려 갔으며 공주는 그를 아들로 삼았다. 공주는 그를 물에서 건져냈으므로 모세라고 불렀다.☞





달나라 사람

(남아프리카 전설)

지 엔 랜스다운 씀 리차드 헐 그림

1973년 3월호 **호빗**

오랜 옛날에는 하이에나와 개가 다정한 친구로서 가끔 서로를 찾아다니며 지냈다. 어느날 하이에나가 개에게 말했다. “여보게 친구 자넨 오늘 매우 외로워 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그래 우리 주인님은 잔인한 분이어서 오늘도 나에게 야단을 치셨어”라고 개가 말했다. “그는 밤도 주지 않고 가끔 발로 차거든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이에나는 잠시 동안 꼼꼼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친구 자넨 달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다음에 보름달이 뜨면 보게, 거기엔 사람이 있다네. 그는 매우 친절하고 자네가 걱정을 얘기한다면 모두 들어 줄 걸세.”

개는 하이에나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다. 그는 무엇이고 언짢은 일만 생기면 땅에 주저앉아 달나라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는 웃으며 자리를 뜰 수 있었다.

하이에나가 처음으로 개가 달나라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속으로 씩 웃고 말았다.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그는 다시 웃는다. 그래서 이 동물을 사람들은 웃는 하이에나라고 부르는 것이다. **■**

멸망된 백성의 유적

폴 체스맨

메조 아메리카: 이 말은 현재의 남부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아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에 붙여진 학술적인 용어로 중앙 아메리카를 말한다. 이 땅에는 과거 문명의 유산으로 비석들이 남아있고 이들의 놀라운 문화적인 업적은 고대에 이들과 쌍벽을 이룬 찬란한 다른 문화를 오히려 능가하기도 한다. 우리 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몰몬경이 메조 아메리카 고대 주민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유적이거나 가공품들은 말일성도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신비와 흥분에 싸인 이상한 마음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백성들의 사라져가는 유적에 발을 돌리게 하고 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특별히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몰몬경의 백성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칠패와 같은 그들의 종교 의식, 수염이 난 하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들의 놀라운 건축 양식, 농업 기술, 뛰어난 예술품과 수공품, 금과 기타 금속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걸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추측일까? 그렇다. 물질적인 자료가 하나씩 발굴되고 있다. 콜럼버스 이전 문명의 유적들이 언젠가는 하나로 결합되어 우리로 하여금 몰몬경 백성들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이 과거에 관한 열쇠의 구실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의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해심을 높여 주게 된다. 이 고대의 유적들은 현대에 살고 있는 후손들의 존경받는 선조들이 남긴 유산이며 이들은 선조가 남긴 유적에서 자신의 위엄, 완전함, 자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대에 살고 있는 이 후손들의 언어, 전통, 문화적인 배경은 오랜 옛날에 뿌리를 박고 있는데 이 과거란 오랜 옛

날에 세워진 성곽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고학 탐구는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유적의 신비를 파헤치고 그들의 전모를 발견해 낸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다음의 유적들은 내가 사진으로 광범하게 수집한 것으로 멸망된 백성들의 유적의 신비와 찬란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코판: 코판은 남미 대륙 중남부에서 두번째로 큰 고대의 수도라고 추측이 되는 곳으로, 고대 주민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연구지가 된다. 이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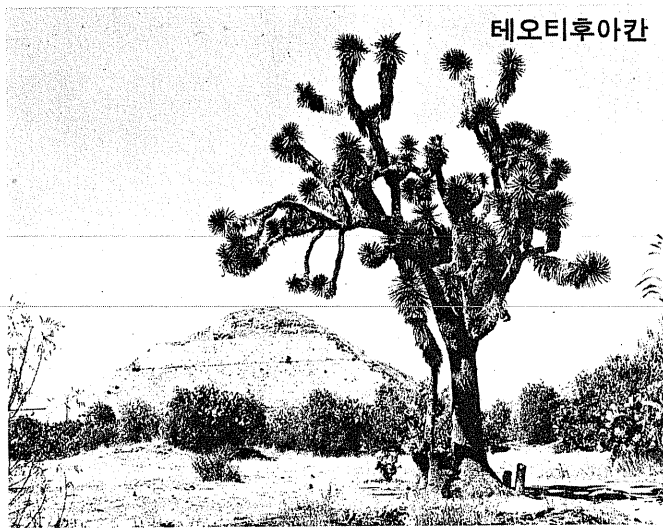
한글
1973년 3월호

체스맨 박사는 브리검 영 대학 몰몬경 연구소 소장으로서 중남미의 유적을 답사하기 위해서 20여 차례나 여행을 했다.

코판

는 기원후 176년으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계단과 돌 비석이 당시 조각술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시장에서 발견되었다. 32피트의 폭에 62계단으로된 놀라운 층계에는 1,500내지 2,000개의 상형문자가 새겨져 있다. 연구가들은 계단에 새겨진 상형문자의 정확한 간격으로 보아 이곳에서 최초로 눈금을 매겨서 거리를 재었다고 믿고 있다. 대 천문가나 수학자들이 점성술로서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했다고도 생각되어진다.

테오티후아칸 : 멕시코에서 동북방 30마일 지점에 위치한 테오티후아칸은 고대의 광대한 유적이 뒤섞인 곳이다.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물론 경 시대인 기원전 300년 경에 세워졌으리라는 설이 유력하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유적으로는 태양의 피라밋인데 이 주위에는 열 두개의 계단이 있다. 이 피라밋이 접하고 있는 전 면적은 이집트 케오프스에 있는 가장 큰 피라밋의 면적보다 크다. 광장, 시장, 궁전, 공공 건물 및 기타 많은 집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시멘트로 포장된 길 밑에 하수도관이 묻혀있다. 벽은 벽화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이 아름다운 도시 테오티후아칸의 아즈텍 이름은 “신들이 살던 곳”이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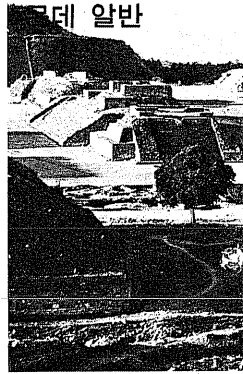
테오티후아칸

몬데 알반 : 멕시코시 동남방 200마일 지점에 있으며 현 왓카시를 1,300피트의 언덕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이 도시보다 아름다운 구조를 지닌 도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구세주가 탄생하기 800년 전에 건축된 고대의 도시 몬데 알반은 아직까지도 그 모습대로 남아있다. 금속품, 값진 보석류, 오석, 금은 장신구, 금관, 우아한 투명그릇, 기타 훌륭한 예술품이 이 고대의 도시에서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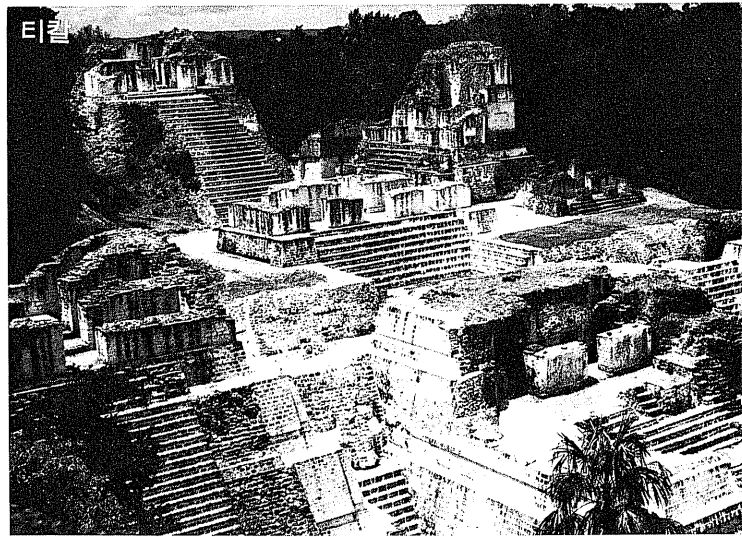
라 벤타 : 소위 말하는 남부 멕시코의 라 벤타 문명이란 기원전 880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큰 현무암에 새겨진 사람의 얼굴 모습은 이곳의 주민들이 새긴 것이며 일부 학자들은 당대 귀족의 모습일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 잘 알려지지 않는 이 백성들은 라 벤타 서북방에 있는 톱스트라산에서 이 돌을 운반해서 조각을 한 것으로 보아 조각술에서는 물론 공학적인 기술에도 천부의 재질을 물려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 10피트 높이가 되는 육중한 두상은 고대 미대륙 예술의 극치를 이루나 그런 조각의 기능과 목적은 아직도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다. 후일에 라 벤타는 케트살코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이 분명하며, 기원전 5세기 경에 벌써 벽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다.



패랭크



몬데 알반



티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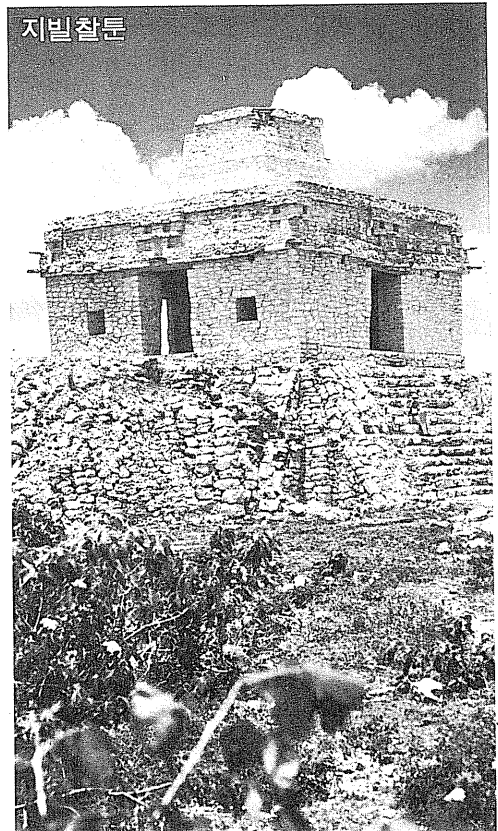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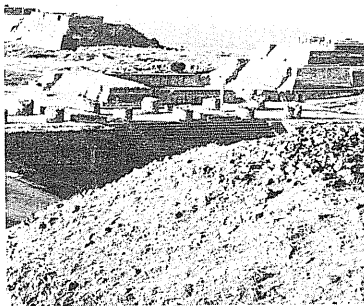
패렌크 : 패렌크의 유적은 멕시코 빌라헤모사 동부 산간 지대에 남아있다. 사층 석탑이 우뚝 솟아 있고, 지면에서부터 층계가 꼭대기까지 뻗어 올라 갔다. 이 건물은 기상 관측소와 망대의 이중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된다. 이 탑 근처의 땅위에 세워진 사원 내부에는 7세기 경 귀족의 묘가 있다. 석관의 뚜껑에는 십자가 모양으로 새겨진 생명 나무의 인장이 있다.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찬란한 고대 문명의 유적은 그 건설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신비에 쌓여있다.

티칼 : 티칼의 대유적은 영령 혼듀라스 변방 근처에 있는 과테말라에 남아있다. 이 고대 열대 지방의 유적은 신전, 궁전, 묘, 제단, 연단, 거주지, 무도장, 테라스, 인도, 목욕탕, 800여개의 비석 등으로 모두 3,000여개나 남아있다. 의식에 사용하던 물건, 도구, 개인 장신구, 기타 물건 만여점이 발견되었다. 티칼의 건축물은 기원전 600년 경으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은 거대한 표범의 사원으로 복합 건물로서는 가장 큰 것은 아니지만 본 광장에서는 가장 위용이 있는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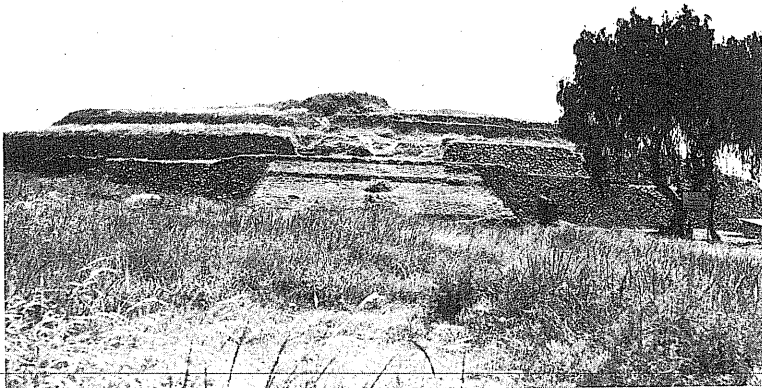
큐이큐일코 : 기원전에 지금의 멕시코시 교외에 큐이큐일코 피라미트가 세워졌다. 이 유적은 원뿔형으로

높이가 80피트 직경이 389피트이며 꼭대기는 사방이 층계와 연결이 되었으며 지금은 원형의 모습만이 겨우 남아 있을 뿐이다. 기독교의 시대에 이를 무렵 대재앙이 큐이큐일코를 휩쓸었다. 결과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화산이 큐이큐일코의 건물을 용암으로 뒤덮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페드레갈(돌 지대)이라고 알려진 멕시코 계곡의 남서부 전역을 휩쓸었다.

지빌찰툰 : 멕시코 유가탄 메리다시의 북부 해안 근처에 있는 이 유적은 20평방 마일의 지역을 점하고 있다. 이 도시는 넓은 지역의 상업 중심지 라고 추측된다. 기원전 2,000년 경부터 주민들이 살았으리라고 믿어지며 스페인이 정복할 때까지 계속 주민들이 이 지역에 살았으리라고 추측된다. 수천년 간을 점한 도기나 부스러기가 건물의 기초와 벽에서 발견되었다. 圖



큐이큐일코



성약의 수호자

매리 프래트 패리쉬

멀

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지방에서는 늑대들이 배를 지어다니면서 울어대기 때문에 밤에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늑대들에 각별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늑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곤 했습니다. 불이 환하게 비치며 타오르면 늑대들은 이곳을 피해 가며 불이 꺼지면 다가 오곤 했습니다. 야영지의 운명은 불을 밝히는 책임을 맡은 사람의 손에 달렸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와같이 욕심에 찬 늑대들이 우리 주위에서 기회만 기다리면서 우리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호책으로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 신앙의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셨고 자녀의 마음속을 밝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야말로 성약의 수호자들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믿음에 성실하다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성약 즉 그들이 택함을 입은 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세세토록 뜻깊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러한 신앙을 저버린다면 늑대가 다시 침입을 하게 되며 성약의 축복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약은 전면적인 배도의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인 사라를 주님께서 새로운 백성인 거룩한 가문을 확립하는데 도구의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거룩한 신권이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우기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4년간을 기다렸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가 된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의 수종녀를 아브라함에게 바치고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약속된 후손 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약된 백성의 어머니를 택하는 것은 아내의 특권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특권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오직 주님만이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서는 사라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기까지 38년간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관한 경전상의 설명을 듣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사라가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신앙을 강하게 갖기까지 어머니로서 위대한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가 전반적인 배도의 상태에 놓여 있던 시대에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조인 노아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라는 그와 다른 생활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친과 조부도 모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녀의 삼촌인 아브라함만이 참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혼자만이 불신앙의 물결을 헤치며 굳건히 나아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그녀와 결혼을 했으며,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사라는 성실했을까요? 성약된 백성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부름인 것입니다. 사라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선택된 위대하고 고귀한 영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는 지상에 하나님의 가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연결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귀한 영은 우상 숭배의 악습에 젖어 있는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참된 한 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준 영향력에 크게 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주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성약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성약의 택함을 받은 후예이며, 그것을 존중하며 후대의 자손들

도 그것을 아끼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라는 성약의 수호자였는데 이를 지키는 것이 그의 영향력에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믿는 우상에 마음을 돌려서는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당한 첫 번째 시련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정이 든 모든 것을 떠나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미지의 땅으로 남편을 따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러한 시련을 참았으나 또 다른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기대했던 우유와 꿀의 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황량한 땅에 이르러 생계를 잇기 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믿음은 강했으므로 불평없이 아브라함을 따라 이집트까지 갔으며 그녀가 아브라함의 자매로 알려지게 된다는 주님의 계명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바로의 집에 인도되었으며 자기의 고향과 비슷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곳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에게 돌려 싸인 왕의 손님으로서 사라가 여호와의에 대한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가 유일한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덕한 아내로서 뿐 아니라 진실되고 유일한 하나님의 성실한 숭배자로서 자신을 지켰고 바로 왕의 궁전 내에 있는 많은 악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때부터 사라는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리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그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넘어서 까지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주님의 뜻에 호소하였으나 자신의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모든 희망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이 소망을 그녀는 신앙의 제단에 바쳤으며, 다시 다른 여자를 택하여 약속된 자손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제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그 축복이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면서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왕비”의 칭호를 수여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성약의 백성들은 대대로 그들의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7 : 15~16 참조) 비록 나이가 90세였으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줄 앎이라”(히 11 : 11)

이삭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 17 : 1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내인 리브가 역시 주님께 의해서 택함을 받았으며 어머니가 되기까지 20여년 동안 시험과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녀는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형제를 낳았는데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배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관습과는 달리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 25 : 2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녀는 성약의 후사가 되도록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권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팔고 두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한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을 주려 했을 때 그녀는 이를 말리고 야곱을 에서와 대치시켰습니다.

야곱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라고 리브가에게 항의하였을 때 그녀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창 27 : 12~13)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리브가는 합당하지 못한 후사에게 성약이 넘어가는 것을 보느니 보다는 자기의 거짓된 행위에 대한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야말로 성약의 수호자가 아니겠습니까?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이삭은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다고 에서에게 말하고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창 27 : 33)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이며 변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후에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신권이 그의 후손을 통

하여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님으로부터 성약을 받은 것과 같이 많은 후손의 선조가 되리라는 성약을 받았으며 이로써 어머니인 리브가의 부담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이 자기의 혈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도록 오빠인 라반에게 보낼 것을 간청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 시급했던 이유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가 자리를 뜨던가 아니면 죽어야 할 형편이었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라헬이 아기를 갖기도 전에 레아는 여섯 아들과 한 딸을 두었습니다. 그녀의 선조인 사라나 리브가 처럼 라헬도 아들을 낳기까지 오랜 동안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창 30:1)고 그녀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창 30:22)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길고 황량했던 기간 동안 주님께서서는 라헬에게 요셉을 가르치는 큰 책임을 준비시켰으며 주님의 방법대로 그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가 성실한 것으로 보아 훌륭히 교육을 받았음이 틀림없는데 이는 그가 오랜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살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의의 쟁취자로서 뿐만 아니라 고상하고 친절하며 관대하고 유덕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고상한 어머니에게 큰 영예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비록 그는 형제들 가운데 막내에서 두 번째의 위치에 있었으나 생득권은 그의 것이었으며 그의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요셉의 위대한 운명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는데 이는 그녀가 베냐민을 낳고 곧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세벳의 역할도 라헬의 역할과 비슷했는데 요세벳의 아들 역시 이집트 궁전에 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아

기의 몸으로 궁에 들어갔고 바로 왕의 딸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닥쳐 왔을 때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박차고 나섰고 박해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기를 키워준 나라를 버렸던 것입니다.

모세의 유모로 고용된 짧은 기간 동안 어머니가 모세에게 준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너무도 사무쳤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는 참된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권능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인 선생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은 이 진리에 비교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세벳은 이스라엘의 참된 구조자라고도 할 수 있으니 이는 그녀가 그의 백성을 이끈 모세를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많은 어머니가 지금까지 보아 온 대로 그들의 신앙에 성실한 성약의 수호자였으나 그렇지 못한 어머니도 많았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졌고 우상 숭배가 그들 사회에 잠입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집에서 이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왕인 아합은 바알 신의 숭배자인 이사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성약의 수호자들보다도 질투심이 강하였으므로 전국이 그녀의 간교에 빠져버렸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읍니다”. (이 24:5) 그러므로 성약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서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그의 영을 건우셨고 그들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역의 땅에서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상의 온 땅에 분산하셨기 때문이며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인 주님과 그의 성약을 지키지 못한 비극적인 간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서는 사방에 퍼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생득권을 가진 혈족의 어머니들은 다시 성약의 수호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엡 5:22, 골 3:18 참조)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남편이 아내의 머리……” (엡 5:23)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브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 3:16)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말일성도의 가정에서도 아내나 어머니가 가사의 주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가장인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나 이혼을 하였거나 병이나 심한 부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있는 말일성도의 가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말일성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조셉 에프 스미스 형제는 1902년 교회의 6대 대관장이 되신 직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조직에 관하여 특히 그 조직이 높은 신권 소유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경우에 아버지의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은 없습니다. 이 권능은 참으로 역사가 깊은 것으로 모든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아 왔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가정에서 가장의 반차를 강화함

브렌트 에이 바로우

선지자의 가르침에서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족장의 반차는 거룩한 기원에 속한 것으로 현세는 물론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도 하나님 백성의 가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질서와 권능을 이해하여 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장 높은 승영에 가기 위한 준비와 자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을 관리하는 권능은 언제나 아버지에게 주어진 것이며 모든 가정 문제 또는 가정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아버지의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날 말일성도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일성도의 가정에서

족장의 반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의 타당성과 실제의 적용은 세심한 평가를 요하게 됩니다.

말일성도의 남편은 어떠한 방법으로 아내의 머리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매사에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만 합니까? 아내도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게 됩니까? 족장의 반차란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고 있는 독재자의 권능과 같은 것입니까?

우선 말일성도의 아버지나 남편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나 장로 정원회 회장이 부름을 받은 직분에서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것과 똑 같은 방법으로 아내가 가정을 관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부음교리, 조셉 에프 스미스(메저렛 출판사, 1968년) 286~287페이지.

있을 경우에도 지도자의 감리하에 지명을 받아 모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이와같이 “가정에서도 관리의 권능은 가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대관장님께서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죽장의 반차는 성스러운 정신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무시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구별되도록 정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장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율법과 질서의 문제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참으로 이를 행사할 자격을 갖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 권능은 계속 남아 있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느 와드에 두명의 감독이 지명되어 한 감독이 성찬식에서 일어나서 다음 주 일학교 성찬식 모임은 한 시간 일찍 시작된다고 광고를 했다면 어떠한 혼란이 일어나겠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두 번째 감독이 일어나서 성찬식은 본래의 시간에 갖는게 좋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두 사람

2. 같은 책 287페이지.



다. 각자는 보좌와 함께 일을 하며 자신을 돕도록 부른 보좌와 상의하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흔히 보좌가 준 조언은 보다 합당한 결

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예가 많습니다.

보좌는 지명된 지도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 그 모임을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역원이며, 지도자가

이 관리하는데 민주적인 원리가 들어 맞겠습니까? 만일 두 명의 스테이크 부장, 두 명의 장로 정원회 회장, 두 명의 주일학교 회장, 두 명의 초등협회, 상호부조회 회장이 해당 보조 조직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율법과 질서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하도록 거룩하게 지명된 사람이 있는데 왜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이나 자녀들을 다스리는 데 나서야 합니까?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가정이나 와드를 관리하는 점의 유사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감독으로 지명을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딤후 3:4)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디 1:6)고 가르쳤습니다.

자기의 가장 큰 책임이 아내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권에서의 두 번째 직분을 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 (딤후 3:5)

가정에서 가장의 반차를 강화함



바울은 족장의 반차에 관련해서 “큰 비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엡 5:32 참조) 사실상 남편이 아내와 가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데에서 보다 큰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권리와 특권은 물론 책임, 실로 엄숙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생활하면서 지나치게 모범적이라든가 가족이라는 조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중요한 행동 율법과 너무 조화를 이룬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 5:25, 28~29, 33)

현대의 계시는 신권을 행사하며

신권 소유자로서 아내와 가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이 권능은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니, 이 또한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

“우리는 슬픈 경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배웠나니, 곧 거의 모든 사람은 사소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생각하자 마자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

는 꾸짖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 가리라.”(교리와 성약 121:36~37, 39, 41~43, 45~46)

말일성도 가정에서 족장의 반차를 강화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고양될 뿐만 아니라 부자간의 관계 또한 증진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을 관리하는 남편의 결정, 권능, 권리 등에 도전을 하게 될 때 자녀들 역시 그러한 권능에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더우기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결혼 및 가족 상담 협회 집행 책임자인 에드워드 제이 리드맨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으나 젊은이의 점증하는 반항 의식은 평등주의로 향하는 전반적인

3. 같은 책 287~88페이지.

가정에서 가장의 반차를 강화함

추세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점증하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요구는 교육, 결혼, 성, 기타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권위에도 전을 하는 것 처럼 젊은이들은 가족의 권위와 이와 관련된 기타 사회의 제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부모는 중대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주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도록 가르치라는 계명을 받았읍니다.

근본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 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교성 68:28) 합니다. 이러한 일을 이행하지 못할 때 이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또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기록하지 아니하며”(딤후 3:1~2)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말일성도 가족이 “불순종”의 말세까지 살아 남게 된다면 우리는 가족이 운영되는 원리를 주의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만 주는 말은 아니며 어

머니가 먼저 가장인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다시 아내를 섬기라는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스미스 대관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 말일성도 모두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의무인데, 이는 율법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교사는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말일성도에게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딤후 2:4~5)고 했고 또한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휘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딤후 5:14)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젊은 남자들에게 권고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 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딤후 2:6~8)고 말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의 반차를 이해함으로써 말일성도 젊은이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가 관리하게 될 모든 방법을 이해하는 아내를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말일성도 여성은 부당한 지배를 하지 않고 가정을 다스리며 아내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의 반차를 떠난 말일성

도의 결혼이나 가정 생활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가정에서 준수되도록 지정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때문입니다.

만일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장의 반차가 교회의 지도자나 경전의 말씀대로 지켜진다면 말일성도의 남편과 아내가 보다 행복하고 안정되고 만족할만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우기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를 키우는 훌륭한 지침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는 또한 하나님 왕국에서 족장의 반차는 현명하고도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가정을 지지하고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수행할 때 격려하고 하나님이 가장에게 부여한 권리와 특권을 행사할 때 최선을 다하여 협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권능과 족장의 반차를 체계화할 필요성은 그 권능 소유자뿐만 아니라 원리 자체에도 있습니다. 말일성도 중에서는 족장의 율법 위에 가정 교육을 시켜야 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함당치 못한 자녀 때문에 가정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4. 에드 워드 제이, 리드먼, 결혼상담의 서문에서. (과학 행동 출판사, 1969) 7페이지.

5. 스미스, 같은책 283~88페이지.

조오지 앨버트 스미스: 타인에게 미친 영향력

아서 알 바셋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이고 뜻깊은 방법으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사람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므로 자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람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영혼과 영혼의 교류이며 몇 가지의 비결로 개발될 수 있는 재능은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나 자기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인데, 이는 사람이 인간 관계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알게 되면 그는 또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는 자발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실에서 인간 관계에 관한 기술을 배울 수 있으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보다는 조정하려고 하는 대인 관계의 기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외치는 소리는 진실함, 참된 관심, 타인과의 뜻깊은 관계를 갈구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모든 특질을 구현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8대 대관장인 조오지 앨버트 스미스입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교회 안팎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그의 진지한 관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비비리 니콜스가 미국인의 생활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앙클 샘슨이라는 제목의 해학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주로 미국에서의 생활을 풍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책 중에서 솔트레이크시를 방문한 인상을 적었습니다. 말일성도 사회의 생활상을 처음 본 수 많은 기자들과도 같이 그는 많은 면을 유모러스하게 보았으나 조오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을 만나고서는 달랐는데, 그에 관해서 그는 "지금까지 내가 보아 온 사람 중에서 정직하고 위엄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스미스 대관장일 것입니다"라고 술회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의 장례식에는 비물론 인사가 연사로 초대되는 기이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연사인 핏츠패트릭은 스미스 대관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졌던 느낌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어떠한 그룹에서도 이름나 있는 사실이 없고 신앙심이 강하고 영감에 찬 지도자였습니다. 그와 단들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은 그의 영적인 면모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스미스 대관장이 서명한 사진



"그는 인간의 형제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은 인류에 대한 그의 진실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자비와 같았고 어떤 교리의 심오성 보다도 더욱 깊었으며, 인간에 대한 인간의 느낌을 보다 풍부하고 완전하게 느끼게 해 준 천부



젊은 시절에 조오지 앨버트 스미스는 지.씨.엠.아이 백화점의 세일즈맨으로 남부 유타와 네바다 동남부를 여행했다.



유럽 선교부장 당시의 모습



상좌 : 1893년 스미스 장로가 최초의 선교지역(남부 여러주)에서 귀환할 때의 모습

상 : 유럽 선교부장으로 있던 1919년 12월에 찍은 사진

의 은사였습니다.”

대관장단에서 함께 일을 함으로써 조오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제이 루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그의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사람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조오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만큼 인류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진 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어린 시절부터 위인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다섯 살 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검은 벨벳 양복을 입히고 브리검 영을 만나 뵙도록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옥ذن으로 가는 열차표를 사는데

영 대관장님의 도움을 바란다는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스미스 자매의 남편은 당시에 영국에서 선교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는 너무 가난하여 혼자서는 기차표를 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 조오지는 두 구역 떨어져 있는 영 대관장의 사무실로 가서 당시에 교회 본부를 둘러싸고 있던 벽의 큰 문을 밀어서 열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그는 존 스미스라는 키가 큰 스코틀랜드 사람과 얼굴이 마주쳤는데 그는 어린 소년에게 “누굴 찾아 왔니” 하면서 용건을 물었습니다. 깜짝놀란 스미스 소년은 “저는 영 대관장님을 뵈러 왔어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그는 “영 대관장님은 너 같은 꼬마를 만날 시간이 없으시다”고 꾸짖듯 대답을 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그가 겁에 질려 막 떠나려고 하던 차에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영 대관장이 나와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존 무슨 일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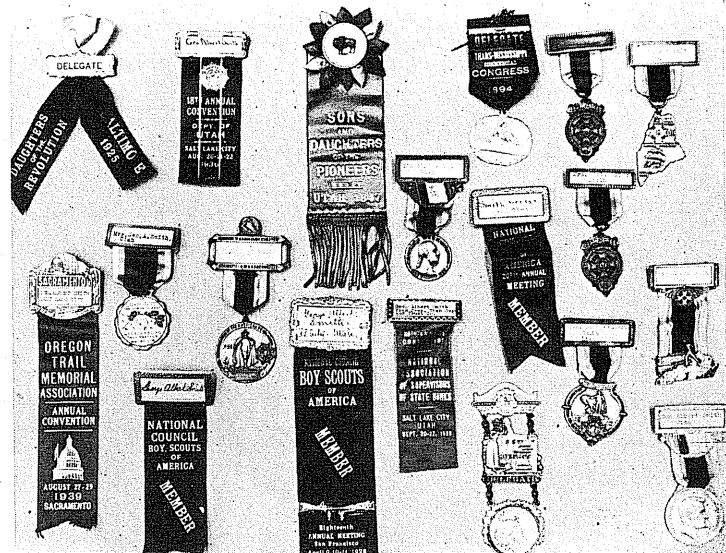
“이에 존은 ‘이 꼬마 친구가 영 대관장님을 뵙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멋진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 대관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엄숙한 어조로 그에게 ‘존 그를 만나 보겠오’라고 말했습니다.

“문직이는 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안아 영 대관장이 서 있는 현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영 대관장은 내 손을 잡으시고 그의 사무실로 데려가셔서 나를 무릎에 안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함 음성으로 ‘영 대관장을 만나고 싶다면?’ 하고 물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과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



가족들은 생전에 스미스 대관장에게 주어진 이 상패와 메달을 아꼈다.

“생각만 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교회의 대관장이며 유타 지역 지사이며 해야 할 일이 많은 분이니 마치 나를 이웃의 주에서 방문을 온 주지사 처럼 친절하고 위엄있게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후일에 주님의 예언자가 된 조오지 엘버트 스미스가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에 관해서 느낀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 같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기억하였습니다.

언젠가 그가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갈 때였습니다. 동행인들 가운데는 히버 제이 그랜트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짐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가서 이야기도 하고 복지 문제도 물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곧 스미스 대관장은 젊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우리가 앉은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생각했던대로입니다. 젊은 어머니가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차표를 봐 줘야겠습니다. 차표를 판 사람이 왜 더 좋은 코스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옥든과 시카고우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표를 샀거

든요. 내가 표를 갖고 있으니 옥든에서 내려서 옥든이나 시카고우에서 오래 지체하지 않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차편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젊은 어머니를 위해 표를 바꾸고 그녀에게 큰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그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의 문제를 알면서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가 스무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짐이라고만 알려진 동반자와 함께 남부 유타를 여행하면서 교회가 운영하는 지시이 엠아이 백화점의 세일즈 맨으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미래 예언자의 능력에 인상을 받은 하였습니다. 그는 가끔 하모니카와 기타를 연주하기도 했으며 콘봉이나 담뱃 등으로 신체를 단련하고 가끔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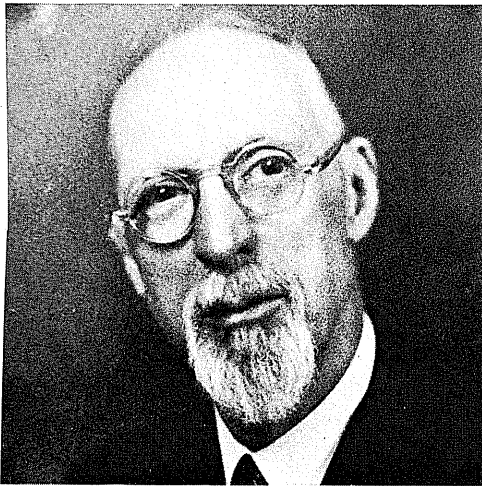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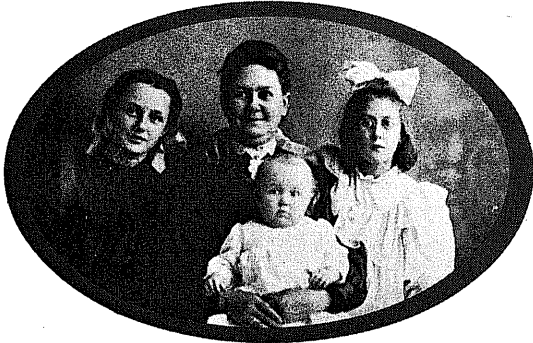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 준 그의 유우머가 적시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짐이 그의 고객과 나누기 위해서 여행 중에 쓰려고 가지고 간 위스키에 얽힌 일화가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지혜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약속 때문에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짐에게 설교를 하지도 않았고 나무라지도 않았으며 다만 농담으로 받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트 레이크 남방 50마일 지점에 있는 프로보를 돌이 떠나기 전에 기회가 왔습니다. 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스키 병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비워지게 한 후 물을 채우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위스키 병을 다시 제 자리에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짐은 위스키 병에 썩은 냄새가 나는 유황물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본 스미스 대관장은 매우 즐거워 했고, 이 이야기와 이와 비슷한 농담의 이야기를 몇번이고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두 곳에서 선교 사업을 했는데 한 번은 유타의 남부 개척지에서 상향회 선교사로서 봉사했고 다른 한 번은 물론에 대한 박해가 그때까지도 심했던 미국 남부의 여러 주에서였습니다. 스미스 장로는 폭도들이 포위한 통나무 집에 일단의 선교사들과 함께 감금된 적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마루 방에서 가슴을 조이고 있을 때 밖에서 총알이 날아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었지만 스미스 장로

대관장의 가족(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딸
에밀리, 아내 루시 에밀리 우드
럼 스미스, 아들 조조지 앨
버트 이세, 딸 에디스.



가족이 가장 아끼는 이 사진은 1950년 80회 생신을 맞아 찍은 것이다.

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스미스 장로는 교회 밖의 그룹들과 접촉을 하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십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는 새로 탄생된 유타주에서 공급 및 특별 대출 기관 연방 수납원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후에 그는 미 독립 전쟁 참전 용사회, 미국 소년단, 국립 농업 기구 등 여러 조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조직에서 저명인사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 독립 전쟁 참전 용사회의 부회장이 되었으며 실버 비버와 소년단 최고의



스미스 대관장은 감미로운 음성으로 라디오를 통해 훌륭한 말씀을 자주 전해 주었다.

영예인 실버 비버로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미 국립 소년단 집행 임원을 역임했고 국제 농사 및 관개 협회회의 회장직을 6년이나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을 한데 묶어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자신의 생활 신조를 나타냈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가난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예언자로서 그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 있었던 가장 주목할만한 일은 2차 대전의 폐허로 고통을 당하는 교회 회원들에게 보급 물자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 도움을 받은 다음에 그는 다시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는 그리스인에게 많은 밀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냉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병자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에 병자를 찾아 병원 복도를 거니는 스미스 대관장의 모습은 솔트레이크시의 병원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초기(1909—1912)에 그는 부름에 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병을 앓았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그는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최근 몇년 동안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고 저 세상을 넘나들었으나 주님의 특별하신 축복으로 아직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 세상 가까이 갈수록 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그때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이러한 교훈은 그로 하여금 동정심의 깊이를 더 해주었고 그도 구세주처럼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

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알게”(엢 7:12)되었습니다.

“나는 과오를 범하는 사람을 찾아 의롭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나는 대중과 함께 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그들의 지상 생활이 행복해 지게 하겠습니다.

“나는 높은 신분을 외부에 나타내지 않겠으며 무분별한 친구의 오만성을 없애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나의 이상에 맞게 살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겠습니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러한 태도를 지닌 분을 발견한다는 것은 마음이 흐뭇한 일입니다. 1933년에 거행된 총회에서 조오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아름다운 것들 중의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수준에 이르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해의 왕국에서 최고의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스테이크 부장이나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실한 회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누구나 승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미덕이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똑같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율법을 지키는 한 승영에 이를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과 의로움을 개발해 나갈 때 우리의 빛이 우리와 함께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지침과 축복으로서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감정이라도 일부러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고 그가 선하게 되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기심과 질투심에 빠지기 쉬운 마음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성공에 기쁨을 나

누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적이 되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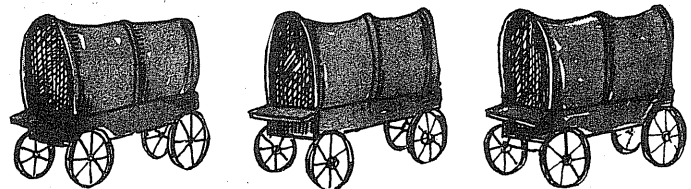
“인류의 구속주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전하고 지상에서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정말로 행복할 수 있게 해 줄 계획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나의 의무요 특권이라고 느낍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생활 신조가 단지 “허울 좋은 원칙”으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미스 대관장의 생활 태도를 그대로 나타내 준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젊은이가 알아야 할 점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미스 대관장님의 사진을 보십시오. 그의 왼쪽 눈을 살펴 보십시오. 눈동자가 중심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온듯이 보입니다. 평생 동안 조오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과 싸웠으며 이런 눈으로 독서를 하고 매일의 시현을 받고 다른 사람을 한번 보고도 알 수가 있을만큼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았으며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서서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떠한 인간의 관심사가 어떠한 조오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자신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임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圖



조오지 엘버트 스미스 약력

(1870~1951)

4월4일	나이	
1870	—	솔트 레이크시에서 출생
1880	10	아버지가 사도로 성임됨
1883	13	ZCMI 공장에서 일함
1891	21	남부 유타에서 상항회 담당 선교사로 봉사함
1892	22	루시 에밀리 우드럽과 결혼
1892-1894	22-24	남부 주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98	28	미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로부터 미 정부 수납 대출 대행인으로 지명됨
1903	33	사도로 성임됨
1909-12	39-42	병으로 활동을 못함
1916	46	국제 관개 시설 협회 회장에 선임됨
1917	47	국제 건조 지역 농업 협회 회장에 선임됨
1919-21	49-51	유럽 선교부장
1921	51	청남 상항회 본부 회장에 임명됨
1922	52	미 독립 전쟁 참전 용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됨
1931	61	미 소년단 집행 위원으로 선임됨
1938	68	남 태평양 선교부 순방
1945	75	교회의 대관장이 됨
4월4일		
1951	81	별세

대관단장 신권—상향회

대관장단은 상호 향상회가 관리해 오던 교회 프로그램을 재정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향회를 신권 중심 체제로 둘을 별도로 조직하였다. 그 하나는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위한 아론신권 상향회(상호 향상회)인데 이 프로그램은 관리 감독의 지시를 받는다. 다른 하나는 멜기세덱 신권 상향회이다. 후자는 두 구룹으로 나뉜다. 즉 18세부터 25세까지의 미혼자들이 모이는 청년 구룹과 26세 이상의 미혼자를 위한 특별 관심 구룹으로 나뉜다. 결혼한 사람은 신권 정원회의 지도하에 활동하게 된다.

이와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보다 효과적인 신권 협의 체계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새 프로그램 하의 기본적인 방침은 상향회 활동이 미혼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결혼한 사람은 정원회가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대관장단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회장단도 새로이 발표했다. 회장단은 관리 감독단의 지도를 받아 봉사하게 된다. 로버트 엘 배크만, 리그랜드 커티스, 잭 에이치

고스린드 이세가 청남 회장단에 부름을 받았고 루스 하디 핑크, 호텐스에이치 월드, 아테스지 카프는 청년 회장단에 부름을 받았다.

본부 청남 상향회 회장이던 더블류 제이 엘드리지와 그의 보좌 조지 아이 캐논 형제와 로버트 엘 백만 형제는 해임되었다. 본부 청년 상향회 회장이던 플로렌스 에스 제이콥슨 자매와 그의 보좌, 마가렛 알 잭슨, 도로디 피 홀트 자매들도 역시 해임되었다. 따라서 청남 청년 본부 임원회의 임원은 모두 해임된 것이다.

성인 활동 프로그램의 고문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이다. 이분들은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가 관리하는 활동, 봉사 계획, 교과 과정의 발전 상황을 감독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결혼한 회원, 신권 소유자의 미망인, 수련 장로는 신권 정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십이사도 4인 고문 위원회의 지도하에 관리 책임자 1명과 부 책임자 2명이 부름을 받아 멜기세덱 신권 상향회를 지도하게 되었다. 십이사도 보조인 제임스 이 파우

스트 장로가 관리 책임자로, 십이사도 보조인 매리온 디 행스 장로와 엘 톰 페리 장로가 부책임자로 각각 부름을 받았다. 청년 및 특별 관심 구룹의 활동과 봉사 계획은 그들의 지도를 받아 실시된다.

스테이크에서의 아론 신권 상향회 프로그램은 스테이크 부장단과 스테이크 아론 신권 위원회가 관장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그외의 지도자나 고문은 스테이크 부장단이 임의로 부를 수 있다.

와드에서는 감독단, 아론 신권 전체 서기 및 아론 신권 정원회 고문(청남상향회 회장단임)과 청년 상향회 회장단이 관리를 맡는다.

멜기세덱 신권 상향회 프로그램에 있어서 청년 구룹은 스테이크 및 지역 단위로 모이되 말일성도 학생회 회원을 포함하여 18세부터 25세까지의 미혼 회원으로 조직된다. 말일성도 학생회는 그 기능을 계속 발휘하여 말일성도 학생들을 위한 조정 기구가 된다. 신학 연구원 상급반에 참석하는 학생은 복음 지식은 그곳에서 계속 받게 되지만 그들의 활동은 스테이크와 지역의 청년 프로그램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었다.

프로그램 발표

26세 이상의 미혼자를 위해서는 특별 관심구역을 지역의 사정에 따라 스테이크나 지역별로 조직한다.

이와 같은 두개의 멜기세덱 신권 상향회 구역을 관리함에 있어서 십이사도 지역대표는 그 지역의 고문이 된다. 또한 필요하다면 지역에서는 청년및 특별관심 구역을 둘 다 구성할 수도 있으며, 조직은 신권 고문으로 봉사하는 스테이크 부장과 지역 내의 각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 한명씩과 필요한 경우에 부른 지역의 역원으로 구성된다.

스테이크의 경우 청년 및 특별 관심 구역을 스테이크 부장단,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멜기세덱 신권 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두 구역을 별도로 고등 평의회 고문을 갖게 되며 역원은 스테이크 부장이 부르고 필요하다면 각 와드에다 대표자를 둔다.

대관장단은 발표에서 상향회의 훌륭한 모습은 항상 교회 체육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체육 프로그램은 계속 갖게 된다. 조직이 이같이 바뀐다고 하여도 로드 쇼, 무용 축제, 음악 축제 및 이전까지 상향회에서 해왔던 활동은 그대로 갖는다.



청남회장단 :왼쪽부터 제1보좌 리그랜드 알커티스, 회장 로버트 엘 배크만, 제2보좌 호텐스 에이치 고스린드 이세



청녀회장단 :왼쪽부터 제1보좌 호텐스 에이치 칠드, 회장 루스 에이치 핑크, 제2보좌 아데스 지 카프

“교회는 모든 회원을 필요로 함”

선교부장 엘 에드워드 부라운

1973년 1월 27일 청운 지부에는 한국 선교부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신권 지도자와 보조 조직 역원이 함께 모였습니다.

열의에 가득찬 본부 임원들은 선교부 임원의 협조를 받아 훌륭하게 준비한 내용을 간증과 함께 전해 주었습니다.

로버트 에이치 스로버 장로는 병중이었으나 우리를 다시 방문하시어 이 훌륭한 지역 모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왜 왔을까요?

왜 한국 전역에 있는 각 지부로부터 300명이 넘는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모였을까요?

그것은 이 나라에도 구세주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백성에게도 행복과 평화가 깃들어야 한다는 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부 역원들은 한국, 특히 교회 회원들로부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마다 그들은 한국 교회 지도자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 다. 또 그들은 한국과 이곳에서의 경험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되풀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절과 호의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선교부장으로서 바로 이곳, 한국 땅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권 지도자와 회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국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회원을 필요로 함”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비활동적인 회원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되게 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소한 이유 때문에 비활동 회원이 된 형제 자매들을 찾아, 모든 방법과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돕고, 그들의 간증을 새롭게 하고 또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 주어야 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어렵고 엄청난 과제임에 틀림 없습니다.

비활동 회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그들이 비활동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일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회원을 처음부터 활동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활동적으로 된 후에 교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회원을 활동적인 상태에 묶어두는 책임은 교회 회원과 지도자가 져야 합니다. 이것을 선교사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비활동 회원에게 할애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침례를 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새로 교회에 입교하는 회원에게 우정을 베풀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정 증진의 책임은 모든 회원에게 있다고 하겠으나 특히 직접적인 책임은 가정 복음 교사에 있습니다. 구도자가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올 때에는 이미 가정 복음 교사를 지명해 놓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정 증진 지침서와 주일학교에서 방문자나 회원, 근래에 다시 활동적으로 된 회원을 위하여 사용할 자료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나는 신권 지도자, 가정복음 교사, 회원을 위하여 사용될 자료를 새로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내에서 우정을 찾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비활동 회원에게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비활동 회원이 된 자녀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는 모든 회원을 필요로 함”입니다. 주님께서는 회원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